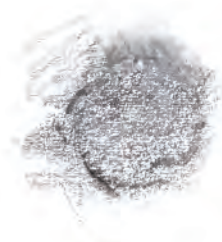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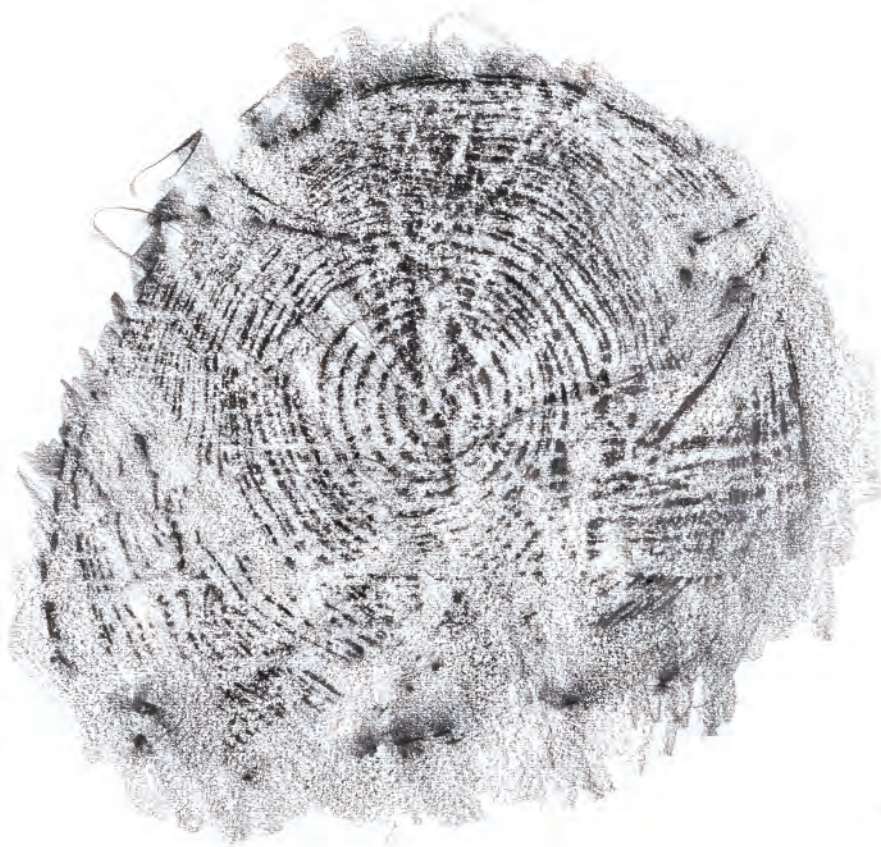


Vol.4  
2021년 12월 반년간지

# 제주바두리

제주바두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21 32-1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바투리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입니다.

Vol. 4

2021년 12월 반년간지





### 구좌읍 한동마을의 혼례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1959년 구좌읍 한동마을 혼례 사진(김보향 출품)이다. 한복에 꽃머리 장식을 한 신부, 양복에 대형 코사지를 단 신랑, 색동 한복에 면사포를 쓴 여자아이 화동, 유명 토티이저 외국 배우를 연상케 하는 머리 모양을 한 청년, 교복을 입고 사진 앵글에 끼어들려는 학생들, 뒷면에 게시된 태극기, 장막 뒤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 당시 제주살이와 혼례문화의 한 단면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 Vol.4 제주바투리

2021년 12월 반년간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02 열린 창 구좌읍 한동마을 혼례 사진

06 발행인의 글 김순자

08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부용식

제주학 연구 기관 · 단체 탐방

10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재원

제주학 토크아보기

14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 김희정의 삶의 결 임승희

19 제주다움을 잘 간직한 돌담경관 강성기



표지 그림

고길천 作 부재(Absence)(프로타주, 2021)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자림로 숲의 나무 약 2,000그루 이상이 잘려 나갔다. 여기에는 삼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나무, 그 외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작가는 잘려진 나무의 밀통을 프로타주(Frottage) 작업을 하여 시민운동 프로젝트인 <낭 싱그레 가게>에서 나무 두 그루를 심는 사람에게 작품을 나누어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다리** 4호(반년간)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순자

편집위원 조정현, 김미진, 임승희, 김선필, 권미소, 김우리, 고은솔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각(064-725-4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22



42

**특집1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 25 **기조 강연\_제주학의 생명은 제주의 고유성과 보편성 발견에 달려 있다** 안병우
- 29 **주제 발표 1\_제4세계의 선두주자 제주,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통해 한층 더 빛날 것** 허남춘
- 31 **주제 발표 2\_제주,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통해 새로운 지역학 구현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 조정현
- 33 **주제 발표 3\_주력 사업을 찾아 제주학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김아연
- 35 **주제 발표 4\_제주학진흥원, 학술연구 강화와 대중화를 통해 제주학발전의 중심지로** 박경환

**특집2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 38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의 성과와 전망** 조정현

**제주학 산책**

- 42 **일본에서의 제주인 여성 항일운동** 김창후
- 45 **저항의 역사, 항쟁의 불꽃** 김동현
- 48 **The Mountain(한라산)은 어떤 영화인가?** 김동만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동향**

- 52 **2021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성과**
- 63 **2022년 주요 사업 일정**
- 66 **제주학 동향(2021년 하반기)**

# 다시, 처음처럼

신축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가면 우리는 새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하겠지요. 다시 새날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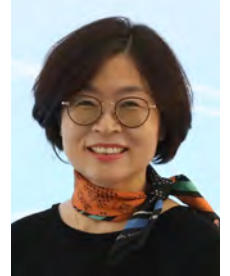
올 한 해, 우리 센터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하였지만, 그래도 주어진 업무 외에도 '센터 설립 열 돌'이라는 짐을 더해서 한해를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숙원인 (가)제주학진흥원으로의 독립 움직임이 더디고, 2022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한 해 동안 묵묵히 성과를 내준 센터 식구들과 응원해 주는 분들 덕분에 더 나은 제주학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은 우리 센터가 열 돌을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열 돌 생일을 자축하는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한 '흑백영화 속에 담긴 제주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다-〈더 마운틴〉 영화 상영과 좌담회'의 잔잔한 울림이 아직도 가슴 속에 일렁입니다. 1950~60년대 제주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센터와 제주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연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와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제주학의 현실과 공동 협력 방안'은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더 나은 제주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깊어져야 할 책임감과 제주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연구자와 도민들과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주학은 제주 땅에 썩어있어 쌓여있는 도민들의 삶의 지층을 탐구하고, 그 지층 속에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발굴하는 학문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학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함께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가 도민들과 함께 '열린 제주학, 소통하는 제주학'을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는 내년 초에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공간에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숙원인 '제주학진흥원'의 앞날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제주학의 미래를 위하여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실이 우리 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에도 가득 담겨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호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주 환경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표지 그림 《부재》를 제공해 주신 고길천 화백님, 그리고 해녀박물관 부용식 관장님,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재원 원장님, 제주도교육청 강성기 장학사님,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전 소장님, 김동현 문학평론가님, 제주한라대학교 김동만 교수님, 귀한 원고 감사합니다. 지면을 멋지게 꾸며준 도서출판 각 박경훈 선생님과 식구들, 그리고 책임연구를 맡은 김선필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진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10년, 20년, 100년을 향해 가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여정에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가)제주학진흥원 설립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게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바투리**



# "제주학 연구 선도기관으로서 '바투리' 잃지 않길"

‘바투리가 뭐지? 제주어인가?’

제주어 사전을 찾아보니, ‘바탕’의 뜻을 갖는 제주어라고 적혀 있다. ‘축어시, 아방 바투리 님지 아녀?(영락 없이 아버지 바탕 같지 않은가?)의 예시처럼 어떠한 물건 또는 형상 등이 갖고 있는 본질을 의미한다’고 한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추구하는 본래의 기능을 잘 대변해 주는 언어인 듯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방학’의 범주에서 ‘제주학’이라는 분야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서 제주지역의 역사·언어·문학 등 인문·사회 및 지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오래전부터 ‘제주학 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을 테고 처음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명칭에 걸맞게 ‘제주학’을 다루는 제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제주학연구센터가 젊어지고 나갈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큰 틀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학’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제주 관련 자료 수집·조사 기관인 도내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등 공공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현재의 상황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아 공공기관 사업 대행 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예산의 배분일 뿐이며, 각각의 주체로서 공동 사업은 아니다. 이러한 공동 사업은 ‘제주학’을 다루는 각 공공 기관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학’의 양적·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용식  
(해녀박물관 관장)

둘째, 유관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이다. 각각이 처한 고유 업무를 토대로 조사·연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주기적인 상호 작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학'과 관련한 각 기관 단체, 개인 등은 그 간의 업무 실적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미진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제주학'의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명실상부한 '제주학'의 선도적 위상 확립이다. 제주도 의회 등 외부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도내 출자·출연 기관이 많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업무 조정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주학진흥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갖는 고유업무의 질적 변화와 '제주학'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도내 공립박물관은 제주적인 것을 주제로 '수집 및 전시·교육'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 바탕이 되는 제주적인 것은 '제주학진흥원'에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의 전제 조건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간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해녀박물관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인 '제주 해녀'(좀 더 나아가서는 '제주 여성'이며 '제주 사람'이다.)를 중심으로 전시·교육 및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우리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제주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닐 것이다. 관련한 예산,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인 사업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녹록치 않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제주학연구센터'와 같이 진행하면서, 해녀박물관이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주학 연구'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만간 제주학연구센터와 해녀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제주바둥리**

# 문화재 관련 학술조사, 발굴조사 등으로 탐라 실체 밝힌다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법인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한 후, 2008년 11월 문화재청 허가 전국법인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재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순수 민간법인인 우리 연구원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전문 기관으로 정식 허가를 등록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학술 조사와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고학 체험 행사 및 제주 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자연 문화재 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조항에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갖추어져 있다. 즉,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지방 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나 비

지정 및 매장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전국 지자체마다 제작되었고, 문화재청 GIS 전산망을 이용하면 문화재의 분포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토지와 지형에 대한 형질 변경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근까지 《풍력단지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등 문화재 지표조사(265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산리유적 발굴조사》, 《외도동유적 발굴조사》, 《삼양동유적 발굴조사》 등 시굴 및 발굴 조사(359건) 역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발굴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서 학술 총서와 보고서 104권을 발간하였다. 앞선 발굴 조사는 대부분 각종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제 발굴 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정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학술 발굴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8년 지정문화재인 ‘일관헌’이 태풍 피해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의현 관아의 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 2009년 발굴조사 결과, 기단석렬과 함께 정면 4칸, 측면 2칸 구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기존에는 관아가 남향(日觀軒)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헌 기록과 고지도를 검증하여 동향(近民軒)임을 밝혀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발굴 조사 업적은 2013년 정의현





관아의 정치한 복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서귀진지' 발굴 조사에서는 암거시설(지하 배수로)과 집수정(우물)을 찾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암거와 집수정은 일제강점기(1914년) 지적원도와 비교 검증을 통해 정방폭포에서 식수를 끌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암거시설과 집수정이 복원되어 있다. '예래동유적'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발굴 조사(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부지)를 실시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주거지

(265동), 창고 시설, 수혈유구, 노지, 배수 및 집수 시설을 비롯하여 토기와 석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 탐라 시대 이전의 대규모 마을이 강정동과 함께 화순리와 더불어 예래동에 존재했음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일부는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형 보존 구역을 설정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



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문화재청 교육사업과 연계한 ‘고고학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역사 문화 강좌에서 제주의 선사 문화를 홍보하였으며, 토기 만들기, 고인돌 운반, 장신구 만들기, 탁본체험, 전복칼(貝刀) 만들기, 화살촉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도 우리 연구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방문 체험 교실 운영, 탐라문화제,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곳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정착주민 이해하기’, ‘삼양 선사 문화 체험 교실’, ‘우리 마을 문화유산 지킴이’, ‘2015 제주 역사 바로알기 직무 연수 위탁교육’, ‘2016 제주 멋을 담은 제주 역사 탐방 직무 연수 위탁 교육’ 등 역사 문화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 도서관, 학생문화원, 박물관에 ‘제주 문화재 발굴조사 성과전시회’를 순회 개최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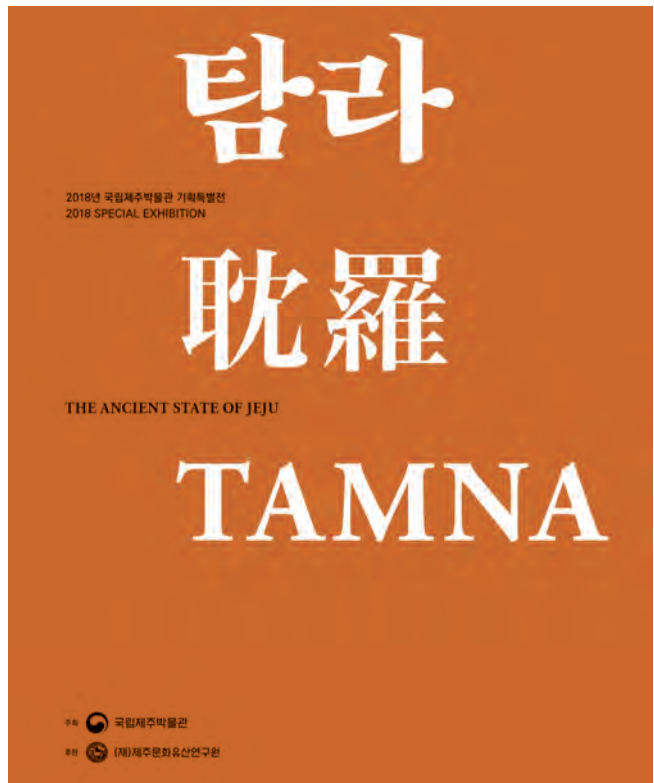
또한 연구원에서는 문화재 관련 각종 학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방어유적조사, 목축유적 조성 조사,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마을 유산 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재 분포 지도 작성 등 여러 분야의 문화 유산 조

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대회 및 특별전(전시회)을 공동 개최 혹은 후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2015년 ‘제주도의 구석기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2016년 ‘제주고산리유적’ 세계유산본부 학술대회, 2016년 ‘제주도 청동기~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청동기학회 학술대회, 2017년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2020년 ‘제주 기와의 제 양상’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등을 후원 및 주제 발표에 도움을 주었으며, 성읍리 등 마을지 발간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탐라 耽羅’ 기획 특별전을 공동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탐라시대 제주 고고학의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물을 집성하고 전시도록을 발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의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 및 학술 조사,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각종 학술대회와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주 역사 문화의 실체를 밝히고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제주바투리**

2008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2012	서귀진지 표본 조사 및 복원 정비 타당성 조사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 문화재 조사
2014	제주시 연대 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활용 계획 수립 도지정 문화재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2015	탐라 사람들의 문화유산 특별하게 만나기 발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2017	서귀포시 연대, 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및 활용 계획 제주 목마관련 갯성유적 실태 조사(서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매장 문화재 분포 지도
2018	가시리협업목장 일대 갯성의 향토 유형 유산 지정에 따른 조사
2020	서귀포시 문화 유산 자료집 발간 사업





# 제주학 톺아보기

1.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의 삶의 걸
2. 제주다움을 잘 간직한 돌담경관

#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의 삶의 결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勉門卒業性成陶 면암 문하에서 공부하여 성품을 이루어  
 天降斯豪又奪豪 하늘이 이 호걸을 내리고 또 이 호걸을 앗아갔네  
 醫國手恢能試藥 나라를 치료하던 솜씨 능히 약을 쓸 수 있고  
 驚人語壯老揮毫 사람을 놀래키던 말은 늙어서도 호방하였지  
 朝天明月今誰主 조천의 밝은 달은 지금 누가 주인인가  
 海隱青山更覺高 바다에 숨은 푸른 산 더욱 푸른 것을 알겠네  
 千載牙音絃斷後 천년 친구 거문고 줄을 끊었으니  
 此生不耐斷腸刀 이 생애 장이 끊어지는 아픔 견딜 수 없네

신홍석(愼鴻錫, 1850-1920), "만장(晩章)", 《병진년(丙辰年) 만장(晩章)》 번역: 김세미오



《병진년 만장》 / 사진: 이창훈

구분	조천 김씨 김희정 일가 문서 현황				합계
	시문류	고문서류	고서류	기타류	
건수	459건	213건	1085건	14건	1,771건
주요 자료	-김희정, 김성휴 만장 -해은시집, 해은문집, 도해록, 북유기 등	-준호구 -고신, 차첩, 소지, 명문, 상소, 시권, 묘지명 등	-조선광문회 출판 서적 다수 -중국 상해 인쇄 도서 다수	-엽서, 명함 등	필사본 포함

1916년 병진년, 제주 문인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 1844-1916)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희정을 따르던 문인 가운데 화북 사람 신흥석(愼鴻錫) 등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김희정의 죽음을 애도하며 만장(輓章)을 써내려갔다. 김희정과 교류했던 163명의 문인들도 김희정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만장을 지어 보냈고, 이를 모아 만든 책이 바로 《병진년 만장》이다.

오늘날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간 김희정의 후손들이 선대의 자료를 소중히 여기며 차곡차곡 모아 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 일가에서 전해오는 귀중한 옛 문서를 통해 구한말 당대 제주 최고의 지식인이자 제주 유림의 기둥으로 칭송되었던 해은 김희정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 해은 김희정 일가 소장 옛 문서, 세상에 나온다

해은 김희정 일가의 옛 문서들이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역사 자료 조사·수집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였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제주지역 사료조사위원이었던 김익수가 김희정 후손가에서 《해은문집(海隱文集)》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료를 열람하였고, 이때 다량의 고문서 및 고서 자료가 함께 소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자료들 가운데 고문서 일부를 재조사하여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서 집성》으로 간행하였다. 같은 해 제주문화원에서 김희정의 유고집인 《해은문집》을 번역하여

그 역주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2021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고문서 해제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김희정의 증손인 김기흥씨 댁에 소장된 옛 문서들을 조사하였다. 이미 김희정 일가 옛 문서가 다량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일부만이 소개되었을 뿐 이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해제,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sup>1</sup>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문건이 한 집안에서 큰 훼손 없이 잘 남겨져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만큼 조사가 시급한 일이기에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김희정 일가 소장 문서의 현황은 위의 표와 같다.<sup>2</sup>



1) 김희정 일가 소장 고문서 및 고서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김일우의 논문이 유일하다. 김일우, “朝鮮後期 이후 제주 家系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2) 2011년 실시한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자료 조사·수집 사업>에서는 필사본의 고문서 및 고서 275건, 인쇄 발간 고도서 1,120여 건, 총 1,395건으로 파악하였다. 2011년 조사 당시, 문서 분류 체계 등이 현재와는 다르므로 조사된 내용과 수치 등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해은문집》(필사본) / 사진: 이창훈

김희정 일가 고문서 및 고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시문류를 비롯하여, 고문서와 고서 등의 자료는 총 1,771건에 달한다. 김희정 일가 옛 문서의 작성 시기는 대략 17~20세기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소장자 김기흥의 선대 8대에 걸쳐 전래·소장되어 왔다. 특히 김기흥의 고조(高祖)인 김희정이 생산하거나 취득·소장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후 김희정의 아들인 김항유(金恒裕, 1874~1908)와 김항각(金恒恪, 1876~1946), 손자인 김필원(金弼遠, 1900~1950), 김희정의 증손이며 김기흥의 아버지인 김석성(金錫聲, 1933~1998) 등에 의해 자료가 더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

### 해은 김희정,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다

김희정의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우경(佑卿), 호는 해은(海隱)·포규(蒲葵)이며, 아버지 김성휴(金性休),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1844년(헌종 10) 지금의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나 1916년 세상을 떠났다. 김희정 일가는 대대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거주해 왔는데 이는 소장 고문서와 고서뿐만 아니라 “김해김씨좌정승공계교수공파세보”의 서문에서도 김희정이 직접 밝히고 있

다. 해은 김희정 일가 소장 옛 문서를 들여다보면, 김희정 일가의 내력뿐만 아니라 김희정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김희정 집안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중 준호구는 총 55건 남아 있다. 준호구 가운데 1777년(정조 1) 제주 좌면 조천리 제21통 3호에 거주한 김일대(金日大, 1741~1811) 호(戶)에 발급한 문서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후 김일대의 아들인 김재인(金在仁, 1772~1808)과 손자 김완진(金完鎭, 1804~1851), 증손 김성휴와 그의 아들 김희정까지 호수(戶首)로 된 준호구가 다량 확인된다. 이들 문서에는 18세기 후반 김일대를 시작으로 4대에 걸쳐 이방·형방·군관직을 지낸 기록이 나타나 있다. 김희정 일가는 대대로 조천리 지역의 상급 이속층(吏屬層)에 속하며, 지역 내 명망 있는 토착 유력층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성휴가 축적한 경제·문화적 자산이 토대가 되어 자식들을 교육해 아들 김희정은 승인전 참봉(參奉)으로, 손자 김항유는 진사시에 입격하는 등 조천리 뿐만 아니라 제주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준호구 자료 뿐만 아니라, 첩, 전령, 명문, 문기, 소지 등과 같은 유형

의 고문서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인물로 당대 제주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김희정이 있었다. 김희정의 행적에 관해서는 김희정 자신이 《해문집》에 5언 장시(長詩) “회갑에 지나온 시절을 기록함[回甲記年]”으로 읊어 기록하였다.

김희정은 8세(1851, 신해년) 때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매계(梅溪) 이한진(李漢鎭)과 윤규관 등에게서 유교 경전을 배우면서 유교적 소양을 쌓아갔다.

17세(1860, 경신년)에 승보시에 합격하여 과거 공부에 더욱 정진하였는데 21세(1864, 갑자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던 전 제주목사 목인배(睦仁培)를 찾아가 그의 아들 목유석(睦裕錫)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 결혼 후에도 지속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부에 매진하던 중 28세(1871, 신미년)에 아버지 김성휴가 죽었다. 김성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장 76건도 오늘날까지 집안에 보관되고 있다.

31세(1874, 갑술년)에 김희정은 제주에 유배와 있던 면암 최익현(崔益鉉)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최익현의 문하로 들어가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속적으로 학문적 소양을 쌓는데 정진하였다. 그럼에도 김희정이 당시를 회고하며 말하기를, “명예와 이익에 끌림을 당하였으니 … 마음을 오로지 하기 어려웠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때까지도 과거시험에 뜻을 두고 있어, 성리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32세(1875, 을해년) 때에 비로소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지만, 이듬해 응시한 문과 복시에 합격하지 못했다. 김희정의 과거 응시 및 급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응시 때 작성했던 답안지인 시권 6건과 과거 응시 허가와 관련된 소지 6건 등도 집안에서 확인되었다.

중앙 유림계의 거유(巨儒)라 불리는 최익현(崔益鉉)은 김희정의 교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최익현과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지와 시문을 교류하고, 최익현의 아들 최영조(崔永朝)와의 교류도 돈독히 하였다. 또 기정진(奇正鎭)의 아들로 항일의병장을 지냈던 기우만(奇宇萬) 등과 영남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을 지원했던 김평묵(金平默) 등과 지속적으로 시문과 편지를 교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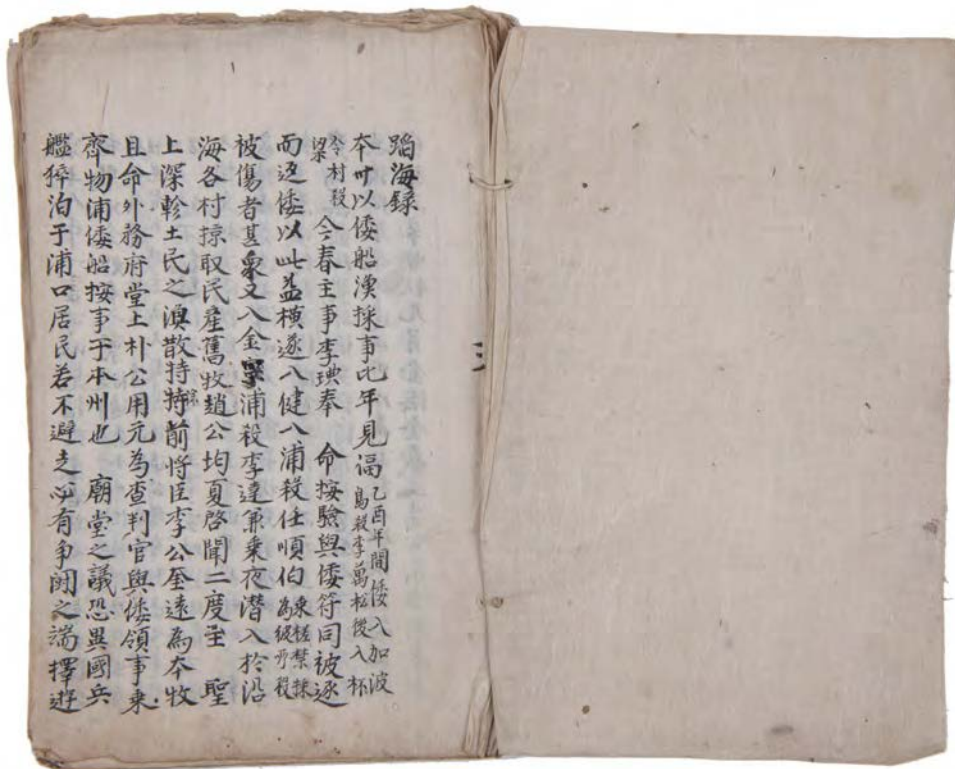
안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와 전국의 유림계에서 이미 김희정을 제주의 대표적 유림으로 받들어 그 위상을 확고히 지켜나갔던 것이다. 그렇기에 제주 안팎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기조로 내세운 이들과 끊임없는 교류망을 형성하며, 김희정의 정치사상적 성향 또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김희정의 정치사상적 성향은 39세(1882, 임오년) 때 삼천서당에서 청나라 정관응이 쓴 개화서 《이언(易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놀라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10여 년간 몸을 담았던 서당을 떠났다는 일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 해에는 영조 때의 김정 목사를 기리기 위한 노봉흥학비(盧峯興學碑)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김희정은 제주도 내의 교학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비록 삼천서당을 떠나긴 했지만 삼천서당을 설립했던 노봉 김정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우면서 제주도 내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48세(1891, 신묘년) 때에는 제주 유림들을 중용하여 훼손된 굴림서원의 옛 터에 단을 설치하여 오현을 제향토록 주창했는데, 지금의 오현단 창설이 곧 김희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또 같은 해 송인전 참봉으로 지내는 동안 일본 어민들이 제주 연해에서 불법으로 어업자원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조선과 일본 간의 국제 분쟁을 조사·수습하였다.

김희정은 제주 사람들이 신임할 만한 제주 출신 관인으로 조사단 수행원에 임명되어,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일을 수행하였고 이 일에 대해 매일 일기를 써 《도해록(蹈海錄)》으로 남겼다. 김희정의 단독저작으로 알려진 《도해록》의 초간본과 중간본, 완성본에 해당하는 자료 3건 또한 집안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회갑 이후 김희정에 대한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1907년(융희 1)에 작성한 “국채보상 통문에 대한 회답[國債報償答通]”, 1908년(융희 2) 최익현의 궤연(几筵)에 올린 “면암 선생 제문[祭勉菴崔先生文]”, 1915년 최익현의 아들인 최영조에게 보낸 “운재 최영조에게 보내는 녹지[與崔雲齋永祚綠紙]” 등 그가 남긴 몇 편의 글을 통해 말년까지도 시국의 문제에 고민하고, 사제시간이었던 최익현에게 받은 사상적 영향이 결국 김희정의 삶의 길을 형



《도해록》 / 사진: 이창훈

성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내의 유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지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해은 김희정의 삶의 결을 엿보다

김희정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곧 그가 살아 온 삶과 그가 평생 동안 지향한 바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와 교유했던 부해 안병택은 “해은유고서(海隱遺稿序)”에서 “탐라로 말할 것 같으면, 면암 선생의 제자는 해은 김선생 뿐이다.[以言乎耽羅 則海隱金公先生是耳]”라고 칭송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심재 김석익의 《심재집(心齋集)》 “파한록(破閑錄)”에는 제주의 문장가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조선시대 제주 지식인의 계보와 같은 인물들과 함께 김희정이 나란히 등장한다. 김희정은 1898년 제주에 유배 왔던 운양 김윤식을 만나는데,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서 “온 섬이 우러르는 선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해은 김희정은 제주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제주 사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 사회에서 사표(師表)라 일컬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던 김희정과 그의 삶의 흔적은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옛 문서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김희정 일가의 옛 문서를 통해 17세기부터 이어온 제주사회의 신분제와 직역 구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 형태와 통혼권, 토지와 노비 등 매대에 따른 경제적 활동을 둘러싼 여러 관행들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유림계 인사의 경조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양식에 관해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18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 김희정 일가와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력했던 유림계 인사들과의 교류망과 그들의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 제주를 지키고 살아 온 문중의 옛 문서는 제주학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산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김희정은 제주 안팎으로 칭송을 받은 구한말 제주 사회의 지식인이자 문장가였다. 자신의 결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제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던 모습은 오늘 날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롯이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제주바투리**

# 제주다움을 잘 간직한 돌담경관

강성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제주의 일상경관에 대한 재발견

제주도민들은 육지에서 온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제주에 오니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주를 다녀보니 어디든지 녹지가 많아서 좋다. 숲이 많아서 좋다.”는 대답을 비교적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재차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뭐가 좀 특별하고, 독특한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제주 어디에 가든 돌담이 있다, 돌담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육지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도 이와 유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제주 돌담경관의 독특함과 미학적인 감상평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도민들에게는 돌담경관이 어떤 존재일까?

1970년대 전통 농업 사회까지만 해도 제주도민이라면 삶 속에서 돌과의 인연은 필수적이었다. 더 나아가 제주도민의 유전자 속에는 돌과 관련된 DNA가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도민들은 삶의 필요성에 의해 실생활과 밀접한 돌담경관을 조성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돌담경관은 도민들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경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돌담경관은 생활유산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2014년에 발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돌담경관을 일상경관의 재발견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제주 돌담경관의 유산적 가치

그렇다면 제주의 돌담경관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인가?

돌담경관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품고 있고, 유산으로서 박제화가 덜 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세계적인 스케일로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담경관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담경관 중 발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도 있듯이 1230년대에 김구 판관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제주의 돌담경관은 이보다 더 오래되었고, 아마도 제주의 선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내 곳곳에 쌓여져 왔다. 또한 돌담경관은 기능적으로도 현재까지 필요에 의해 유지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다움의 경관적 가치를 더해져 도내 곳곳에 새롭게 조성되고도 있다 (사진 1).

제주의 돌문화는 다종다양하지만 전반적인 규모만 보면 여타 지역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제주의 돌문화 중 돌담경관 만큼은 이런 규모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샘플 지역을 토대로 제주 돌담의 길이가 산출되고 있는데, 고성보는 제주 돌담의 길이를 36,355km, 이 중 발담만 22,108km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22,108km의 발담 규모는 현재 FAO(세계농업기구) 공식 홈페이지에 제주 발담을 소개하는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종준·권윤구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제주 발담 길이를 산출하였는데, 그 길이가 최소 23,938km로 2007년 때

1) 고성보, 2007, “제주발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발담의 경관가치 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3(4), 1-8.



(사진 1) 최근 택지개발지구에서 돌담 쌓는 모습(제주시 아라동)

피코의 돌담경관<sup>3</sup>에 비해 조성 시기가 훨씬 오래되었고, 역사적으로 누적된 시간에 의해 다채로우며, 도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다만 피코 섬의 돌담경관은 제주보다 원형성 측면에서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sup>4</sup>. 이렇듯 제주의 돌담경관은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의 중요한 요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잘 갖추고 있다.

### 제주 돌담경관의 종류와 특징

제주 돌담경관의 종류와 기능으로 본 특징은 무엇일까? 제주의

돌담경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울담, 발담, 산담, 원(갯)담, 잣성의 특징을 조성 주체, 위치, 기능, 형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울담은 주민 주도로 집 경계에 쌓은 돌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직접 쌓기보다는 제주의 마을마다 존재하였던 석공(일명 돌챙이)에게 의뢰해서 주로 외담으로 쌓았다. 이런 울담은 택지 경계와 함께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하고, 제주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였다.

둘째, 발담은 경지 주인 또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경지 경계에 쌓은 돌담을 말한다. 발담은 도내 전역의 경작 과정에서 출토되는 돌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지 경계 기능을 하였다. 또한 전통 농업 사회에는 우마의 출입과 강한 바람(해풍)을 막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했고, 폭우 시 토양의 급격한 침식도 완화시켜 주었다. 더불어 발담은 출토되는 돌의 양과 특징에 따라 외담과 겹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셋째, 산담은 모지 경계에 쌓은 돌담을 말한다. 산담은 제주의 전통 장묘 문화와 관련하여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마을의 산담계(집)에 속한 석공들이 쌓았다. 산담은 폭

2) 박종준 · 권윤구, 2019, "지적 정보를 이용한 제주 발담 길이 추정",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5(3), 37-44.

3) 피코 섬의 포도밭의 돌담경관은 풍화작용을 거치고 쪼개진 현무암 덩어리를 회반죽 없이 쌓아올려 만들어졌다. 그 역사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돌담경관은 암벽 해안에서부터 섬 안쪽으로 줄지어서 있거나 해안과 나란히만 들어선 특이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포도밭 돌담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당시 생활상을 조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피코 섬은 포르투갈에서 최단 거리가 1,500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훼손이 덜 되어 원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 2〉 피코 섬의 포도밭과 돌담경관

이 넓은 겹담(2~3m)이나 외담으로 쌓았고, 묘지 경계의 기능과 함께 우마의 침입과 화입(火入)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넷째, 원(갯)담은 마을 주민들의 함께 해안가 연안지대에 쌓은 돌담을 말한다. 원(갯)담은 외담이나 겹담으로 쌓아 주민들이 어류 등을 포획하기 위한 돌 그물 역할을 했다. 원(갯)담은 육지 '돌살'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점과 달리 제주 해안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경관이다.

다섯째, 잣성(잣)은 중산간 또는 산간 목장 지대에 쌓은 돌담이다. 잣성은 관이 주도가 되어 마을별로 겹담으로 쌓았다. 잣성은 해발고도에 따라서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목장 경계나 우마의 분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이외에도 제주에는 집 내외에 올레담, 우영담, 통싯담 등이 있고, 해안가에 불턱담, 용천수 돌담, 포구 돌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제주다움을 간직한 돌담경관

최근 제주의 돌담경관도 사회적 변화를 비껴가지 못한 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정 지역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사라진 채 그 흔적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구획된 도로변은 지역성이 사라진 채 획일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경계에 경관미를 살린 울담도 있고,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로 이장(移葬) 후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어 가는 산담도 많다. 게다가 해안가 원(갯)담은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도 많고, 원래의 기능과 달리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변한 곳도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돌담경관은 과거 전통적인 모습과 달리 조경적, 경제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제주의 돌담경관은 유산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품은 채 오랫동안 제주다움의 대표적인 경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점은 옛 제주를 기록한 수많은 고문헌 속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으로부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바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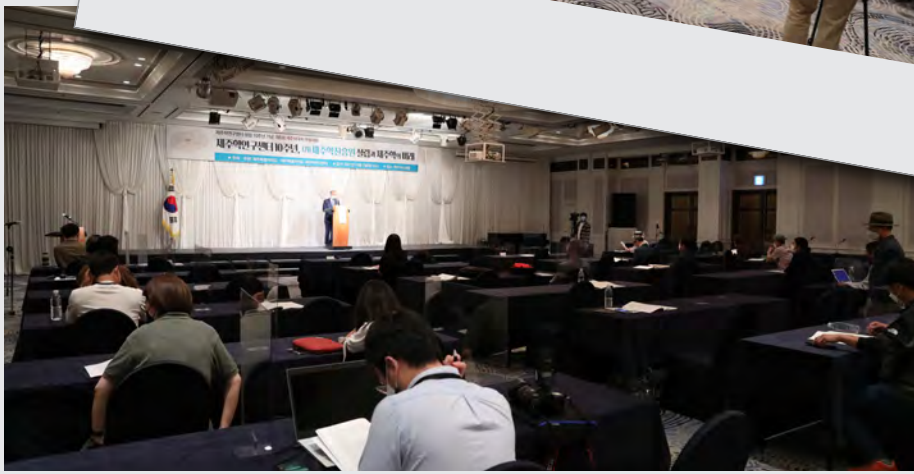
#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 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7일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를 주제로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국내 지역학(한국학) 연구 출연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제주학진흥원 설립 준비와 제주학의 미래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집 ①은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발표문을 요약하여 지상 중계 한다.[편집자 주]







# 제주학의 생명은 제주의 고유성과 보편성 발견에 달려있다

안병우(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 1. 전근대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

### 1) 역사 서술과 한국학

한국학은 개화기에 ‘본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전근대에도 한국학이 존재했다. 정체성과 관련된 탐구는 주로 역사 서술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사 편찬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었다.

고구려 이문진, 백제 고흥, 신라 거칠부과 김대문·최치원 등의 당대사 편찬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 건설의 문화적 기념비이자, 삼국이 발흥하던 시기에 ‘우리’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술하여 후대에 남기려는 의식의 발현이었다.

고려 건국 후에는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다. 고려 초 《삼국사》 편찬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대 왕조들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려가 그들 국가의 통일적 계승자임을 표방하고자 함이었다. 이후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삼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 및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전대의 역사를 다시 서술했다. 그것은 자국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었으며, 한국학 성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김관의 《편년통록》 등 개인들도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 2)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한국학

한국학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진행된 경세론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도 성립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고려 말 사전(私田)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조준 등 사전 개혁론자들은 당시

토지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한 뒤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당대의 학자 관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3년 동안 논쟁이 지속되었다. 논의의 범주도 확장되어 토지를 비롯하여 호구와 군사제도, 부세 수취, 진휼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 초기 정도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의해 한국의 경제론 연구는 학문 체계를 갖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는 의학, 농업, 지리, 국가 경영 등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서경덕과 이황, 이이 등 걸출한 학자들의 활약으로 이기론, 심학, 예학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들의 뒤를 이어 유형원,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이 사회 경제, 정치와 법제, 농업 기술, 역사와 강역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한국학은 정체성 확인과 실용적 목적으로 당대 왕조 혹은 전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지방성과 지방학, 그리고 한국학

### 1) 지방학과 한국학

제주와 같은 지방을 연구하는 학문을 흔히 지역학이라고 부른다. 특히 제주학은 민족학(국가학)과 대비되는 지방학(local studies)에 속한다. 그것은 한국학과 상대적인 위상을 늘 전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학과 지방학의 관계를 역사의 측면에서 서술한 이영권에 따르면, 국가 역사에서 지방사가 배제되어 결국 역사의 알맹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사의 연구와 보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국학과 지방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지방학을 지역학으로 명명하여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지방은 중앙과는 다른 생활공간이었다. 이점에서 한국학과 지방학은 계서적이거나 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평행적 평등적 관계이며, 각기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학문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지방학-한국학-(동

아시아)지역학-지구학(global studies)의 네 층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애매한 이중성을 해소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학이 민족학과 대립하면서도 그의 일부로 존재하였던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학이 발전하기 어려웠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체제가 중앙집권적으로 구조화되고 운영되어 본래 독자적인 문화와 기억을 간직한 지방의 정치 공동체가 상호 통합되거나 중앙으로 흡수되면서 특수성을 상실해 온 과정을 밟은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민족과 국가 중심의 가치관이다. 한국처럼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위상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은 권력 관계와 생활, 문화 수준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학은 한국학에 포획되어 형성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 2) 읍지의 편찬과 지방학

지방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지방에 대한 관심은 외지인인 중앙 관료들이 먼저 표명하였다. 특히 그들은 통치와 군사적 이유로 지리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전국 지리지 편찬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각 군현이 시작한 실태 조사 작업이 지방학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 연장선에서 16세기 말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읍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학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초의 사찬 읍지는 경상도 함안 군수 정구가 주관하여 1587년에 편찬한 《함주지》이다. 그 뒤를 이어 여러 읍지가 속속 편찬되면서 17세기는 사찬읍지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653년 제주목사 이원진이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의 실태를 조사하여 《탐라지》를 편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는 기억의 기록화, 역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그런 면에서 제주학의 기반을 놓는 첫 작업이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라지》는 제주에서 편찬된 첫 사찬 읍지로서 풍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그 때문에 《탐라지》의 내용은 제주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의 기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출간되는 제주 읍지들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제주에 관한 관찰과 조사, 그리고 기록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화가 곧 근대적 의미의 지방학 성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개 자료의 수집과 서술에 그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의미를 추구하는 학술적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읍지 편찬을 위한 지방 문화와 자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지방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제주학 탄생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 3. 제주학의 기반과 전망

#### 1) 제주학의 기반

제주 정체성의 원천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자연 조건에 있다. 그러한 지리적 조건에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생겨났다. 육지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그러한 특성은 변형, 융합되고 때로는 소멸하며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제주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어떤 광역 자치단체와도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 고유성, 현재의 특수성, 내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억과 삶이 일체화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 고유성은 제주가 사실상 건국 설화에 해당하는 시조 설화를 갖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삼성 설화는 인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단군신화 내지 주몽과 박혁거세 등의 난생 설화와 동질적이다. 제주가 인간=시조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구분하여 신성하게 생각하고, 제주를



다른 천하와 구별되는 별개의 천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제주가 육지와 무관한 정치체를 형성하게 된 연원을 인간=시조 출현 설화로 설명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체가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이고 특수한 점을 볼 수 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교역망 속에 포함되어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지방과 일찍부터 교류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류를 배경으로 정치체가 형성된 특성을 보였다. 그

러나 1102년 고려가 탐라군을 설치하고 의종 때 현령관을 파견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치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제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후 탐라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다른 지방이 겪지 않은 특수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제주는 유배지로 선용되어 유배 문화가 형성되었고, 지방관을 통한 중앙과의 교류는 제주민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의 풍속과 생활 양식은 적지 않게 변화되었고, 고유성과 다양성은 또다시 축소 내지 소멸되고 새로운 융합문화가 형성되었다.

근현대시기에 제주가 겪은 사건들은 육지와 차원이 다른 기억과 현재의 특수성을 형성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제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일본 열도를 방위하기 위한 방어기지를 건설하였고, 제주도민은 기지 건설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겪은 4·3사건은 제주도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희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주민 내부에도 동질감과 적대감을 동시에 깊게 남겼다.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과 트라우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주의 역사는 한국사의 일부이면서 때로 한국사의 큰 줄기와 같등하고, 때로 그에 희생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기억을 제주에 남겼으며, 특히 현재의 특수성은 제주학의 존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이다.

## 2) 비판적 제주학의 전망

지방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중앙정부와 국민국가의 이념, 특히 민족학과 그의 바탕인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체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제주는 오랫동안 기억과 역사 전쟁의 중심지였다. 제주는 이 전쟁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치적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또 수정하게 만들었으며, 제주학이 한국을 넘어 다른 지역, 예

컨대 오키나와나 대만처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제주의 특수한 경험으로 볼 때 제주학은 한국학의 내부에 위치하면서도 한국학과 평행으로 걸어갈 수 있고, 동아시아 속의 제주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기억이나 이야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만족할 제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제주학의 생명은 제주의 고유성과 그 안에 있는 보편성을 얼마나 잘 발견하여 재기억화(remémoration)하는가, 그리고 다른 지방, 지역과 연대하여 보편성을 확장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학이 ‘學’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고 발전하여야 한다. 그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탁월하고 지속적인 연구 성과, 즉 지식 생산이다. 제주라는 특정한 역사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과 활동한 인물, 그들이 남긴 기록과 기억에 관한 구체적 사실(대상)을 체계적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제주와 한국학의 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주의에 함몰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을 기억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제주 현대사와 관련하여 세계 냉전사의 큰 틀 안에서 연구하지만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주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발견하고 타자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학의 개방화도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요컨대 민족(국가)주의와 지방주의,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산출하고 소비하여 제주학을 지방학으로 굳건하게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학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록과 기억의 수집과 관리, 연구자 양성, 재정 확보 등이 요구된다. 근래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에서도 기록의 수집 및 기억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역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기록과 기억 수집과 기록화, 보존과 활용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다. **제주바둑이**

# 제4세계의 선두주자 제주,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통해 한층 더 빛날 것

허남춘(제주대학교 교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세계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 정체성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제주학진흥원 역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제주를 연구하는 본산지로서, 제주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학진흥원의 추진 목적은 제주 정체성 확립에 두어야 한다. 추진 방법은 제주도민의 자주성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것은 자치분권·탐라 천년·제주 천년을 정립하는

## 제주의 미래 가치 창조

오랜 시간동안 제주의 정체성은 국가주의(중앙집권주의) 속에 놓여있었다. 국가주의의 물결은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도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주의가 완화되고 있다. 이제 지방화·분권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제주 스스로 미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된 상황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제주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세계화의 파고는 국가나 지역 문화에 위기를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지역 문화가 세계 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 또한 있다. 즉, 세계화는 제주 문화를 세계 속에 현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 신화에 필적하는 제주 신화가 있고, 세계자연유산과 그 외에 더 많은 가치들이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 세계 문화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집중적이고

데 초점을 둔다.

## 제주학진흥원 설립 필요성

제주학진흥원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 설립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과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백제나가야 문화권에서는 이 법을 근거삼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불거져야 제주도청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법에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주학진흥원이 품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제주학 진흥원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문화 산업 부흥, 지역 인재 양성(제주학 대학원 설립),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소멸위기 언

어의 통합 관리 보존 등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

### 세계 지역학의 현황

제주학은 일찍부터 연구소나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성립되어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의치 않다. 일본은 단일문화(민족)정책을 통해 아이누,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파괴하고 있다. 중국 역시 40~50개의 지역학이 존재하지만, 신장위그루, 티베트를 탄압하는 등 지역 탄압을 하고 있다. 반면 유럽 웨일즈의 경우, 1999년에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이양 받은 후 웨일즈어 TV방송이 송출되고, 2021년 웨일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활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제주, 제4세계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

서구 유럽 중심의 근대가 등장했고, 그것은 제1세계와 2세계의 흥보 그리고 제3세계의 독립 해방 투쟁으로 이어졌다. 제3세계 아래에서도 소외, 차별, 배제된 소수민족과 지방이 반기를 들게 되면서 제4세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는 제4세계로서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주는 한태평양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또한 몽골제국과 말과 같은 중세 제국의 흔적은 이제 제주의 풍경이 되었으며, 하멜의 표류 등은 제주가 세계와 만나는 최전선이 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비전승의 보고로서 무한한 가치가 제주를 제4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제주에는 원시 고대적 요소들이 오롯하게 남아있다. 중세어인 제주어도, 제주 신화도 남아 있다.보편적인 역사의 기층이 제주에 오롯하다. 이것들을 발굴함으로써 세계사적 보편성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무형유산, 민속, 해양문화, 독자적인 문화를 발굴해서 제4세계의 제주학의 가치로 키워나가야 한다.

### 제주도의 거시적 현안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발전 전략은 관광 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 공동체 파괴와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됐다. 국가주의, 입시 문제로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외면했다. 또한 '서구적 근대'의 획일주의

에 빠져있었다. 전통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중앙 정권도 제주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었다. 탈 입시, 탈 중앙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가 제주의 전통과 역사를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를 연구할 수 있는 교육 활성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제주 정체성은 4중 주권의 시대 속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나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동아시아인이면서, 세계인이다.'라는 자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학은 인문학(人文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천문학(자연과학), 지문학(사회과학)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제주학진흥원의 과제

제주학진흥원은 역사적 부채를 해소시켜야 한다. 몽골제국의 침탈이후 식민지적 상황, 조선왕조의 수탈, 43살육, 이후 근대화 과정의 지역 파괴 이 모든 것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하여 정신사적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분권의 이론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필요하다. 진흥원은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난한 제주학 연구기관, 학자들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태평양을 향하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점에서 동남아시아를 향하는 교두보임을 부각하여,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특별강의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학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 존중의 정신을 제주 신화·민속으로부터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진흥원은 탈근대 패러다임의 발신처가 되어야 한다. 제주가 인간과 자연, 생명 모두가 존중받는 땅이며, 자연치유의 섬, 인문의 가치를 창조하는 섬임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학진흥원의 설립은 결국 제주도민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이다. 잘 결집해서 제주학진흥원이 순탄하게 설립되기를 기원한다. **제주바뚜리**

# 제주,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통해 새로운 지역학 구현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여있다.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에 속해있다. 심방과 무속, 세시풍속 등 독창적 생활 문화 역시 전면적인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셋째, 제주 문화는 한국 문화의 원형과 문화 자원의 원천 소스이다. 제주 전통 문화의 소멸은 마지막 남은 한국 전통 문화 원형의 소멸과 같다. 제주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 전승할 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역사문화권정비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대응할 전담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도민에게 자기 문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에 설립될 때부터 독립 예산을 확보한 독자적 연구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 실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고 살아있는 역사 문화 박물관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탐라 역사문화, 소멸 위기 제주어, 멸실 위기 민속과 해녀문화 등을 조사·연구하고 아카이빙하며, 제주의 정체성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는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을 추구한다.

제주학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변경이자 주변이라는 특성이 있다. 변경이기에 원형적 전통 문화가 살아있다. 주변이기에 육지 문화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제주 문화가 멸실 위기에 놓

화에 대한 기록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전담 진흥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주학진흥원의 설립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제주도내에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학의 중심 기반은 제주도민의 지지와 참여에 있다. 제주도는 지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전승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유력 가문이나 집단이 아닌 제주도민 전반의 성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보다 강화된 학제적 균형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도민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권정비법》 등의 지역학 관련 법률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및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확산을 추구한다. 2020년에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포함된 탐라역사문화



권 관련 성과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적중초 등 마을 문서 중심의 문헌 자료를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전국적 지역 연구 재단과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영남 지역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이곳은 유교 목판 10만장 모으기 등의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호남 지역에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있다. 이곳은 특히 호남에 산재한 민간 소장 기록 자료를 발굴하고 번역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 충청 지역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다. 이곳은 현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교 문화 중심으로 기관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재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주의 유교 즉, 제주 고유의 유교 문화, 유배 문화, 유교와 습합된 문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의 고유성을 살림으로써 보편성과 독창성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제주의 고유성을 살리는 차

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문 사회 분야를 특화하면서도 자연 과학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탐라 역사 문화 관련 쿠로시오 해류 동아시아 해양 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적 문화 접변 및 문화적 보편성과 독창성에 주목해야 한다. 살아있는 생활문화로서 제주문화의 고유성에 주목하여, 민간의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 자료 축적 및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제주어 사전, 탐라 역사와 문화 스토리뱅크 등 현재까지 구축된 제주학 아카이브의 고도화와 킬러 콘텐츠 촉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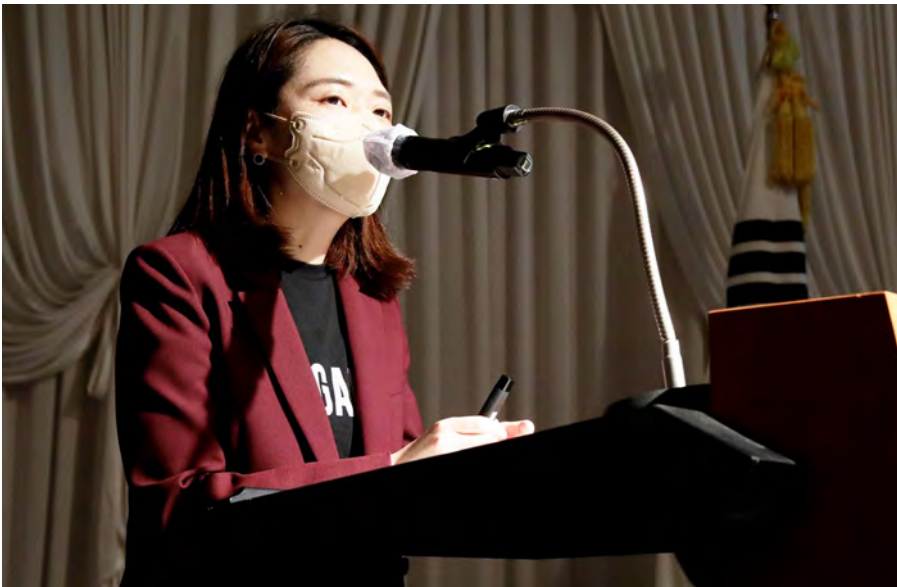
제주학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제주학은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새로운 지역학 구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제주 역사 문화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학을 선도하고, 아카이브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세방화(glocalization)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바투리**



# 주력 사업을 찾아 제주학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연(한국학호남진흥원 전 기획연구부장)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기초자료 집성,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호남국학종합DB 구축, 교육·연구사업, 호남학 대중화 등이다. 진흥원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획연구부가 사업·연구를 기획하면, 자료교육부가 호남지역의 자료들을 조사·발굴·수집·보존하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기획연구부에서 호남지역의 고문헌을 국역하며, 자료교육부는 그것을 토대로 학술대회 개최, 교육, 호남국학종합DB를 구축하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17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14년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호남 지역에는 고문헌 20여 만 권, 고문서 15만 점, 고서화·고목판 등 총 70여 만 점 이상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조사,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여 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진흥원은 총무부, 기획연구부, 자료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다. 연구인력은 기획연구부와 자료교육부에 배치되어 있다. 기획연구부는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국역서를 편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료교육부는 자료 조사 발굴, 수집, 보존, 학술교류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진흥원의 정원은 총 18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14명이다. 여기에 전라남도 파견 공무원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방식으로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에 나서게 된다.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과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금,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법인, 수탁사업 등을 통해 조달받고 있으며, 2021년은 총 34억7천5백여 만 원의 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설립될 제주학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학진흥원은 주력 사업을 찾아 기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흥원의 경영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과 부서별·개인별 목표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추진사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제주학 연구의 원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학 아카이브를 지속

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청사 및 수장고 시설을 구축하고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IPM) 및 훈증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영인 복제하여 영구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연구원의 연구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연구원의 논문 발표비,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연구년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학을 주제로 원내 연구과제 1년 1편 의무를 수행하거나 연구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구원 개인의 시간 관리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넷째, 협업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연구와 사업을 검토하고 제주학 확산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서 제주학 교양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교양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을 권한다. 또한 교육부 BK사업단과 HK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학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제주학’이 되어야 한다.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한다. 여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영상 강좌 보급·확산 등이 필요하겠다. 또한 문화콘텐

츠 원형 발굴이 요구되며, 다큐멘터리 등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제주바투리**



# 제주학진흥원, 학술연구 강화와 대중화를 통해 제주학 발전의 중심지로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도 있지만, 그것은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점이 앞으로 제주학진흥원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1년 예산은 총 42,154백만원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예산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경상북도의 문화 정책은 경상북도가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지원하는 기관이 되었다.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라는 슬로건을 내건 안동에서는 그 수도청이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강조하기까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에 법인 등록을 시작하고, 2002년에 박사 연구자 5명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 인원과 예산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2002년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걸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제주학진흥원이 나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인문 자원인 유교 문화, 유교 유산 등이 연구되고 수집·조사된다. 또한 진흥원이 위치한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안동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은 정규직 인원이 총원 82명에 현원 73명이고, 그 외에 사업을 위한 지원 인력들 130여명이 모여 총 200여 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중추는 연구직이다. 물론 행정직

지 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68필지 264,722㎡(80,078평), 8개동 30,805㎡(9,318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에서 자료 수집·보존·연구, 성과의 확산·보급·교육·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연구 기능과 더불어 진흥 즉,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미래본부, 국학진흥본부, 국학기반본부, 경영지원실, 인문정신연구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학진흥본부, 국학기반본부, 인문정신연구소 연구원이 주로 자료를 수집·정리·연구·보급을 하는 사업 부서이다. 국학미래본부는 예산, 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하고, 경영지원실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한문교육원을 운영해서 3년 코스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2년 코스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자체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올해 들어 경상북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매개로 한글관련 사업을 선도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여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집한 국학 자료는 총 582,271점(2021년 8월말 기준)이다. 고서 182,865점, 고문서 321,944점, 목판 66,630점, 현판 1,329점, 서화 5,506점, 기타 3,997점이다. 매년 평균 2만점 이상 수집을 하고 있다. 자료는 매입하기보다는 문중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기증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총 66건 70,689점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유교 책판 64,226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52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서 한국의 편액 550점, 만인의 청원, 만인소 2점, 국보 《징비록》 1건 1점, 보물 19건 1,855점, 지방유형문화재 등 41건 3,355점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추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제일 중요한 존재의 기반,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다.

2021년도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비 사업 총 18건 20,185백만 원, 경상북도 도비 사업 총 17건 3,165백만 원, 안동시 시비 사업 12건 938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자료 조사·수집·보존 사업이외에도 그것을 활용·대중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비 사업의 경우 경북 지역의 문화 자산들을 학술·관광 자원, 대중화 하는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경북 정체성, 경북학, 경북 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연구하는 일이다. 안동시 시비 사업 역시 안동 정체성, 안동 문화 등 안동학 연구를 위한 연구·사업들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안동학 연구 사업을 20여 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

제주학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학 관련 학술지를 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학 관련 고문헌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국역이 필요하다. 특히 승정원일기 외에 제주목 관찬자료, 문집, 간찰 등에 산재한 기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술교류의 다각화·내실화를 통한 제주학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비교 연구의 가치가 큰 국내외 지역학 연구소와의 교류를 확대하면 좋겠다. 또한 제주학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기 위해 강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강좌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 제주 대표 공간·의례·인물·사건 등에 대한 대중적 소개 총서를 간행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민속, 언어, 역사 등 지역학의 일반적 접근법을 문학, 회화 등의 분야로 확장하여 제주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제주학 연구 및 진흥 관련 재원을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학 연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방문연구 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제주의 특수한 역사 경험에 대한 직시와 성찰, 치유가 제주학의 기능과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점에서 ‘치유의 제주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주바투리**

#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의 성과와 전망



제1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대상작: 2019년 고성리 영등굿 중 용올림 장면/사진: 한진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민참여형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제주 시민이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지역학 기록보관소이자 기록생산기지’로서 제주학 아카이브를 완성해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사업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그 의미와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의 성과와 전망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 사람의 것이다. 아니 제주 사람의 삶의 역사를 담아내야 하고 제주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명제를 따르고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수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사업이 2년째

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도 개설하였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꿈꾸며 제주학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수집 사업이 시작되었다. 1차년도에는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당한 분량의 사진과 영상이 수

**제1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기간 | 2020. 10. 8. - 11. 26. (12.7 까지 연장)

주제 | **제주의 마을제**  
마을굿 신과세례 산신제 포제 이사제 등  
제주의 역사 속에서 지켜온 우리 마을의 제사 관련 자료

분야 | 사진 부문 / 동영상 부문  
\* 제출 자료는 출판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소유가 필수임  
\*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는 촬영 시기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

분량 | 제한 없음

제출 방법 | 온라인 업로드,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 온라인업로드: <http://www.jst.re.kr/oaLogin.do>  
\* 이메일 제출: [jhcho@jst.re.kr](mailto:jhcho@jst.re.kr)  
\* 고령 등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대상 | 2020년 12월 중

대상(1명)	50만원 상품권	상장과 상품권 지급
최우수상(2명)	30만원 상품권	
우수상(3명)	20만원 상품권	

※ 선정된 모든 자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작권료 지급

문의처 | 064)747-6138,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 제주학연구센터

Jst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기간 | 2021. 3. 30. - 9. 30. (연장접수)

주제 | **제주의 관혼상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 수집합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포함한 일생의례 등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제주인의 관혼상제에 관한 자료를 기다립니다.

분야 | 사진 부문 / 동영상 부문  
\* 제출 자료는 출판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소유 작품이어야 함  
\*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는 촬영 시기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

주제 | **제주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

분량 | 제한 없음(예산 범위 내에서 저작권료 지급)

제출 방법 | 온라인 업로드,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제출  
\* 고령 등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대상 | 2021년 10월 중  
(저작권료와 별도로 시상금 지급함, 대상: 50만원 상품권 등)

제출처 | 전자우편 [jhcho@jst.re.kr](mailto:jhcho@jst.re.kr) /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제주학연구센터  
온라인 업로드 <http://www.jst.re.kr/oaLogin.do>

문의처 | 제주학연구센터 064)747-6138

Jst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대상작: 1980년대 서광리 상장례 때 상주 가족이 골꾼들(상두꾼과 마을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감사의 절을 올리는 장면/ 사진:강만보

집되었다. 마을굿, 신과세제, 포제, 이사제, 영등굿 등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한 공개 수집에는 제주도민, 민속학자, 사진작가, 영상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응모하였고, 사진 4,500여 점, 동영상 30여 편을 출품했다. 출품 사진과 동영상으로는 남읍리 등 7개 마을의 포제와 이사제, 송당리 등 21개 마을의 신과세제와 마불림제, 한림 등 8개 지역의 풍어제, 칠머리당 등 9개 마을의 영등굿, 추자 대서리의 걸궁 등 5개 마을의 당제 등 총 50여 개 마을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한진오, 최우수상 강만보·김기용, 우수상 김일영·양성혁·류진옥 씨를 입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2021년 제2회 공개수집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의 관혼상제'를 주제로 사진과 영상을 모집했는데, 주제는 관례(성인식), 혼례, 상장례, 각종 제례, 수연례(환갑, 진갑 등) 등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일생 의례였다. '제주의 관혼상제'를 주제로 하여 제주도민, 학자, 사진작가, 영상작가 등으로부터 제주인의 일생 의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

사진 600여 점, 동영상 7편 등이 출품되었다. 도내 30여 집안과 마을에서 출품한 사진과 동영상은 서광리 등 10여 집안의 상장례, 30여 집안의 혼례, 20여 명의 백일과 돌, 10여 집안의 환갑, 진갑 등 수연례, 10여개 마을의 포제와 이사제 등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혼례나 상장례의 단편적 사진이 아닌 의례의 전 과정을 담아낸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사례가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제주 전통 관혼상제례의 변천 과정 확인과 재구성을 가능케 하는 귀중한 원천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공개수집 수상작으로, 대상 강만보 씨, 최우수상 홍성흙·양용준·김은영 씨, 우수상 한길송·김보향·안병식·강만의 씨를 선정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강만보 작가의 1980년대 '서광리 상장례' 등 사진은 의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상여와 상두꾼, 여성을 앞세워 긴 줄을 어깨에 걸고 상여를 끌고 가는 '설배', 상여를 맨 상두꾼과 도움을 준 마을주민들인 '골꾼'에 대한 음식 대접과 절올리기 등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어 기록적 의미가 크고 예술적 가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최우수상: 1960년대 귀덕마을 혼례/소장: 양용준

치 역시 뛰어나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모 사업을 계기로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조를 안착시키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학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와 순기능적 파급효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사업이 제주학을 정립하고 제주의 공동체문화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에는 ‘탐라문화의 기록자’로 나설 제주도민을 육성하는 ‘제1기 제주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지금까지 전문가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이 나름 성과를 보였지만, 지역 아카이브의 진정한 완성에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아카이브의 직접적인 ‘탐라 제주의 역사문화 기록자’로서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9시(총 10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강좌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 표와 같다.

시민 아키비스트 강좌에는 총 26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23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생 23명은 2022년부터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 아키비스트의 첫 활동으로 2022년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공개수집 <우리 마을 옛사진> 공모전에 참여, 사전교육을 거쳐 실제 조사와 기록 작업을 수행한다. 이번 강좌를 계기로 기존 전문가 중심 아카이브 구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자로 나설 수 있는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으로의 본격적인 전환 점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학 아카이브의 진정

## 제1기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강좌 프로그램

회차	강의 내용	강사
1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좌혜경(문화재위원)
2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화	홍기표(국사편찬위원)
3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는 제주역사 다시 쓰기	조성윤(제주대 교수)
4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고광민(생활사연구가)
5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김창일(국립제주박물관)
6	앨범을 활용한 자서전 만들기	정종영(동화작가)
7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강정효(사진작가)
8	구술채록을 활용한 보통사람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9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박정근(사진작가)
10	기록 아이템 선정과 오픈 아카이브 활용방법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생애구술사 강좌(김순자 센터장)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수료식

한 완성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기록가(아키비스트)를 육성함으로써 시민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및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은 제주학을 온전히 제주도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2022년에는 향토사학자와 제주도민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마을지’에 대한 수집과 기록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주대에서 생산된 마을지 원본을 수집하고 디지털 및 저작권을 확보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함으로써 누구든지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제주도 온 마을의 마을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수집된 마을지를 기반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지역 기록자료를 찾아내어 기록하는 작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인의 삶을 영상과 글로 기록하는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제주도민이 제주학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 활용 등에 오롯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주바둑리**

## 일본에서의 제주인 여성 항일운동

김창후(전 제주4·3연구소 소장)

### 오사카 방면 제주인 항일운동가는 300명에 달했다

1923년 12월, 제주와 오사카 간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많은 제주인들이 힘들여 도항 증명서를 얻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오사카에 도착한 후 연고자를 찾아 일터를 얻고 일본인들은 기피하는 유리나 고무, 철, 방직, 메리야스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먼지로 새까매지도록 일했다. 자이니치 제주인들이 가장 많을 때인 1934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5만여 명이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이주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버는 돈을 고향에 송금해 제주 경제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 본토에서도 조선인들은 일제에 치열하게 대항했다. 이 가운데 간사이(関西) 공업 지대가 있는 오사카 지역에는 제주 출신 노동자들이 많아 이들을 배경으로 제주 출신 활동가들이 항일운동을 왕성하게 벌였다. 1932년 8월, 일제의 '제주도의 치안상황' 보고서는 오사카에 제주인 사상 운동가가 300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중략) 현재 오사카 방면에서 사상운동에 종사하는 제주도 출신자는 약 300명에 달하고, 혹은 통신뉴스로, 혹은 출판물 뉴스로 불온사상을 유포하여 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략) 산북 지방 출신 요시찰인 요주의 인물은 80여 명이고, 산남 지방 출신은 25~6명을 넘어서고 있다.”

1910년대 중반부터 1930년 중반까지 항일운동이 왕성했던 시기, 사상운동의 조류는 민족주의적인 것과 무정부주의적인 것, 공산주의적인 것들이 혼재해 있었다.

1930년 전후, 자이니치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이를 토대로 김문준으로 대표되는 자이니치 제주인 항일운동가들은 각 방면에서 고향 사람들의 지지를 토대로 일제와 투쟁에 나섰다.

### 오사카 지역 자이니치 제주인 방적 여공의 쟁의

자이니치 제주인들이 가장 많았던 1934년, 제주 출신 여성 노동자의 수는 제주인 50,045명의 1/4에 달하는 20,699명이었다. 당시 이들 여성의 다수는 생활고로 출가한 10대 소녀로 주로 오사카부 남부의 사카이시(堺市)와 기시와다시(岸和田市), 센난군(泉南郡)에 위치한 방적 공장에 다녔다. 기록을 보면, 이들의 노동 조건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 주야 2부제로 12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자료마다 다르긴 하나 임금도 낮아 1930년 10월 오사카시 여성 섬유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82전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10전~15전의 기숙사비와 매월 20전의 상애회 회비 등을 빼앗기다시피 납부해야 했다.

1930년 이후, 센슈 지방의 최대 방적자본인 기시와다 방적에서 잇따른 임금 인하와 조업 단축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곳은 제주 출신 여성을 포함한 조선인 여성들의 대표적인 취업처였다.

이런 가운데 5월 3일, 사카이공장은 임금이 4할 이상 감소하자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185명이 파업을 결의하고, 조선인 여공을 중심으로 약 1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오사카 지역 항일운동을 지도하던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쟁의단은 그후 6월 13일,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2일 간에 이르는 파업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이들 노동자들이 쟁의



제주 출신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한 기사와다방적 여공들의 파업

를 벌이며 제출한 요구서 내용이 흥미롭다. 임금인하 철회, 통근수당 및 주택수당 제정, 조선인 여공들의 주장으로 '귀국 퇴직수당 제정', 이부자리는 여름용과 겨울용 두 가지로 마련해 줄 것, 서신·면회를 절대 자유롭게 할 것 같은 생활 환경 개선 요구도 있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전반은 자이니치 조선인 노동운동의 고양기로 오사카에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중 제주 출신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참가했다고 여겨지는 두 건의 쟁의로는 1931년 7월 오사카의 마쓰모토(松本) 고무 공업소에서 발생한 쟁의와 1932년 4월의 오즈부린기교(小津武林起業) 파업이 있다. 당시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西定川區)에 위치한 오즈부린기교 연사부에서 동료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조선인 여공 36명이 연사기계 54대의 실을 끊고 파업에 돌입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제주 출신 안평화였다. 이 쟁의는 조선인들 중 제주 출신 활동가가 다수 참여했고, 일본공산당계 노동조합인 전협의 지도 아래 전개된 투쟁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 제주인 여성 항일운동가

**강평국** 제주도의 대표적인 여성 항일운동가는 강평국이다. 그는 1900년 제주읍에서 태어나 천주교의 보호 아래 공부하고 1914년 신성여학교를 제1회로 졸업했다. 그는 곧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1919년 3월 1일과 3월 5일, 3·1만세운동에 경성여고보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한 후 일제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던 강평국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여자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일본 이주 다음 해인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가 창립되자 부인부 책임자로 선임돼 활동하고, 다음해인 1928년 1월 21일에는 근우회 동경지회가 창립(위원장 박화성)되자 정치문화부 소속 역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한편, 1927년 1월 16일에는 도쿄조선여자청년동맹(다음해 2월 22일 해체)이 창립되자 초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에 재일본 동경동부 조선노동조합에서 부인부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평국(가운데). 왼쪽은 최정숙

그는 불행하게도 1933년 들어 병마와 싸우다 3학년생으로 학업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다가 같은 해 33세로 운명했다. 그는 항일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제주 최초의 여교사였고, 해외 유학생이었다.

**김시숙** 김시숙은 1880년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3·1만세운동 후 늦은 나이에 민족의식에 눈을 떠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25년,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 계몽 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제주여자청년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곧 조천주재소 경찰에 연행돼 조사 받다 석방된 후, 40대에 고향 선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던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는 오사카에서 고순흙과 김문준 같은 고향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재일여공보호회'를 조직해 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여공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1930년대 초 성행하던 소비조합운동의 일환으로 재일본 여공 노동 소비 조합을 결성해 여공들을 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기금을 마련해 짚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짚 값에 물건을 매입해 짚 값에 되팔며 여공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그도 1933년 7월 오사카 적십자병원에서 54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운명하고 말았다.

**현호옥** 현호옥은 1913년 성산포에서 현길홍의 큰딸로 태어났다. 현호경과 현호진 두 오빠는 모두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성산공립보통학교에서 수학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 야간부에 다니며, 낮에는 자전거공장 여공으로 일했다. 1933년 2월, 그는

일본 전협 화학노조 오사카지부 회원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남해고무공장 여공이 되어 오사카지부 동북구 남해공장 분회원이 됐다. 1934년에는 전협 오사카지부 화학노조 준비회 부인부장 및 동지구 야츠이고무공장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며 여러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34년 7월 20일 검거된 후, 1935년 10월 26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는 1986년 별세했다.

**이경선** 이경선은 1914년 경기도 시흥군에 태어났다. 고향은 가파도로, 그는 대정중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이도일의 딸이었다. 그는 대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덕여고보에 입학했다. 그 후 그는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해 1학년을 수료하고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 자퇴했다. 그러던 그는 1935년 7월 10일,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일본 고베시 나카노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정세는 그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자료가 부족해 많은 활동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그는 공부하던 중이던 1941년 12월 9일, 효고현에서 일제에 또 다시 체포됐다. 그는 다음해 10월 23일 고베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일본적색구원회’와 ‘일본소비조합연맹’ 활동** 일본적색구원회(赤救)는 1930년 8월에 발족했다. 원래 이 단체는 1928년, ‘해방운동의 희생자는 그 정치적 경향 여하에 관계없이 사회진화의 희생자이다’는 모토 아래, 일제와 싸우다 희생된 희생자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 단체에도 많은 제주 출신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1932년 7월 ‘제주도 해녀사건의 희생자를 돕자!’는 격문을 발송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재오사카 조선인들은 민주의료기관 설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31년에는 오사카 조선 무산자 진료소가 설립됐고, 다음해 2월에는 히가시나리구와 니시나리구에서 민중 진료소 설립 운동이 벌어졌다. 1933년에는 요우수나(西浜)에 진료소가 생기고, 히가시나리 무산자 진료소가 설립되자 김문준의 딸 두 분(김숙희와 김정희)이 간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제주바투리**

# 저항의 역사, 항쟁의 불꽃

## -1901년 신축항쟁의 유적을 찾아서

김동현(문학평론가)



남매 이명복 작. 살아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남매를 작가는 한 화면에 담았다. 이순옥은 희미한 사진을 바탕으로 이재수는 후손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했다.

1901년 제주 신축항쟁은 오랫동안 이재수난, 신축교난, 성교난 등으로 불려졌다. 19세기 말 조선에 팽배했던 세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저항과 공격적 포교를 펼치던 천주교와의 갈등으로 벌어진 신축항쟁은 단순히 제주에서 벌어진 '민란'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천주교로 상징되

는 외부 세력과-여기에는 종교와 학문을 제국주의 팽창의 도구로 활용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오랜 관행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제국, 제주도민들 사이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1898년 방성칠난 이후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저항의 불길은 당시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는 일본,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열강들의 아시아 침략이 노골화되었던 시점이었다. 오랜 박해 끝에 포교의 자유를 얻은 교회는 고종 황제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천주교는 종교를 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지니게 되었다.

정치 세력화된 천주교 신부들은 조선 본토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제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는 제주는 '미신'과 '야만'의 땅일 뿐이었다. 포교를 명분으로 제주문화와 제주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주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거기에 대한제국 황실의 과도한 세금 징수는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오랫동안 중앙 정부의 착취와 수탈에 시달렸던 제주 사람들에게 '민란'은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시정하는 방법이었다. 이른바 '민란의 전통'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1901년 5월 전도민적 항쟁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항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재수는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날개 달린 아기 장수 설화가 이재수라는 인물에 투영되기도 했다. 당 본풀이 중에는



대정읍 인성리삼의사비 / 사진: 도서출판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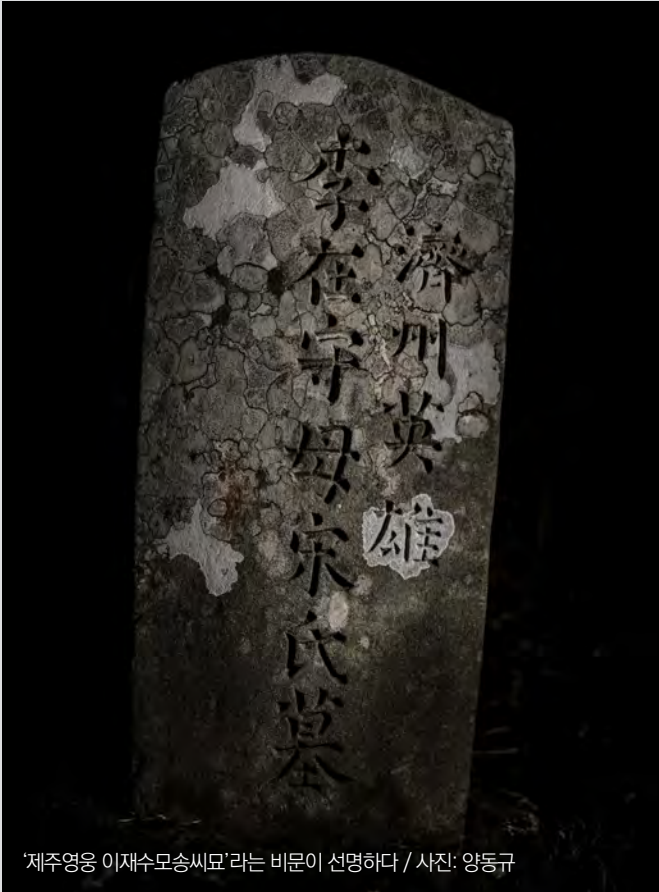
이재수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한 사례도 있다. 1901년 5월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제주읍성을 장악한 민군에 의해 300여명의 천주교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세폐의 주역이었던 봉세관 강봉헌은 육지로 도망가 버린 후였다. 세폐의 배후세력이었던 프랑스 신부들도 역시 피신한 상태였다. 세폐와 교폐의 주역들이 아니라 천주교도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신축항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된 것은 분명하다.

가톨릭 교회는 일종의 '순교'라는 측면에서 1901년 신축항쟁을 바라보았고,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의로운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당시를 기억했다. 이러한 기억의 대립은 신축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오랫동안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당시 민군의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전도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은 그 자체로 평가 받아야 한다. 특히 제주 사람들에게 이재수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가는 이러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던 대정 일대에는 신축항쟁의 기

역을 품고 있는 역사적 장소가 여럿 있다. 신평 본향당, 향사터, 이재수 모친 묘, 이재수 생가 터가 대표적이다. 대정읍 신평리 인근에 자리잡은 신평 본향당은 한림 민회를 습격한 천주교도들에 의해 오대현이 체포된 후 이재수가 장두로 추대되는 순간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스물 다섯 살의 청년 이재수는 장두가 된 직후 이곳 신평 본향당에서 제를 올렸다. 결전을 앞두고 본향당을 찾은 이유는 당시 천주교도들이 당을 부수고, 신목을 베는 등 제주 신앙 공동체를 적대시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당문화는 단순한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당은 제주 공동체의 내적인 질서를 유지했던 공동체 문화의 핵심이었다.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제주 사람들은 당이 파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출정에 앞서 신평 본향당에서 본향신에게 삼가 제를 올리는 것은 신축항쟁이 제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저항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신평 본향당에 이어 이재수와 민군의 집결지가 되었던 향사터 역시 신축항쟁의 중요한 유적 중 하나다. 지금은



‘제주영웅 이재수모송씨묘’라는 비문이 선명하다 / 사진: 양동규

당시 모습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출정의 깃발과 함께 인근 가마터에서 일제히 불을 지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져 온다.

제주도민들에게 이재수가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슬포 공동묘지에 안장된 이재수 모친 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화 15년(1940년)에 대정읍 3리(안성, 인성,보성리) 주민들이 세운 묘비에는 ‘제주 영웅 이재수 모친 송씨 묘’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소화 15년 3월, 안인보3리 일동 근립’이라고 되어 있다. 1940년이면 신축항쟁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난 때이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재수를 ‘제주 영웅’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신축항쟁에 대한 민중적 기억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신축항쟁의 영웅 이재수의 생가 터는 대정 추사관 인근 ‘두레물’ 바로 앞이다. 두레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정도로 깊은 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우물터 바로 앞이 이재수 생가 터이다. 지금은 평범한 주택으로 생가 터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신평



위로부터 이재수 생가 터, 신평분향당, 이재수 모친 묘 / 사진: 도서출판 각

분향당과 향사터, 이재수 모친묘와 이재수 생가터. 120년이 흐른 지금 신축항쟁의 역사를 더듬을 수 있는 유적들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지 못했다. 그나마 이재수 모친 묘는 이재수의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다른 유적들은 당시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조차 없다. 제주 민중의 집단 기억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러한 유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바다리**



## The Mountain(한라산)은 어떤 영화인가?

김동만(제주한라대학교 교수)



The Mountain(한라산) 촬영 장면 / 소장: 김동만

### 〈The Mountain〉

- 극영화 42분(문화 영화/흑백)
- 제작사: USIS-KOREA (주한미공보원)
- 제작 년도: 1964년
- 감독: 양승룡

영화 ‘The Mountain(한라산)’은 제주 4·3을 소재로 다룬 42분짜리 흑백 중편 문화 영화이다. 주한미공보원(USIS-KOREA)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그동안 신문 기록으로만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필자와 제주 MBC의 노력으로 영화 필름을 입수하면서 57년 만에 공개되었다. 이번 발굴된 ‘The Mountain’은 당시 주한미공보원 영화과의 과장이었던 험프리 렌지가 워싱턴 주립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들에서 한국과 관련

된 25편의 영상 가운데 하나이다. 1964년 2월에서 4월 까지 제주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국내용 판본은 ‘한라산’이란 제목으로, 외국용은 ‘The Montain’으로 제작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The Mountain’은 한라산 중산간 마을에서 살던 제주 사람 고 씨가 4·3 피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 해안 마을에 내려와 살게 되고, 다시 중산간 마을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중산간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이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여기에 주인공 고 씨의 회상이 영어 내레이션으로 깔린다.

“겨우 몇 달 동안 제주도 인구의 1/4이 말살됐습니다. 6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8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어쩔



토벌대와 전투를 벌이는 무장대(The Mountain의 한 장면)

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라산 중산간 마을에 살던 고 씨는 마을이 불타게 되자 어린 딸 ‘을순’과 고아가 된 이웃집 소년 ‘사삼’을 데리고 해안 마을로 피난을 내려오게 된다. 해안 마을에서 성담을 쌓아 보초를 서고, 옛장수를 하며 고물을 모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고 씨. 그는 항상 불타버린 중산간 고향 마을로 돌아갈 날을 꿈꾼다.

힘겨운 피난 생활 속에서 어느덧 을순은 성장하여 상군 해녀가 되고, 사삼은 군을 제대한 젊은 청년이 된다. 그러던 중 4·3 이재민 원주지 복구 정책이 생기면서 고향 마을인 중산간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고향 마을로 돌아와 받을 개간하고 재정착을 꿈꾸는 남편에게 고 씨는 을순과 사삼에게 서로 친남매가 아니라

는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충격을 받은 사삼은 한동안 방황하지만, 둘은 남매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영화는 사삼과 을순이 중산간 마을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The Mountain’은 제주4·3을 소재로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3의 실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한다. 곳곳에 회상 장면을 통해서 불타는 마을과 희생되는 주민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전투 등 4·3의 상황들이 재현되지만, 주인공들이 마을을 등져야 했던 배경으로만 작동한다. 양승룡 감독은 시사회 이후 갖은 좌담회에서 “아직 4·3사건의 이모저모를 파헤칠 단계에 이르진 못한 거 같습니다. 저는 4·3사건을 규정한다든지 그 성격을 조명하는데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제



위로부터 4·3석성을 쌓는 제주도민들, 4·30이재민 원주지 복구 공고문을 보는 주민, 물질하러 가는 을순과 해녀들(The Mountain의 한 장면)



한라산을 바라보는 주인공 고씨(The Mountain의 한 장면)

주도민이 4·3의 타격을 입은 후 다시 자력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려는 피나는 모습을 그리려 한 겁니다.”라며 4·3보다는 제주도민들의 자립에 초점을 두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1965. 1. 14.자 제주일보)

영화는 4·3 이재민이 원거주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4·3 난민 정착 사업이 전개된다. 이 영화가 일부러 ‘4·3 이재민 복구 공고문’까지 등장시키면서 난민 정착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4·3의 완전한 종식으로 제주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계몽 영화로서의 장치다.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정치 상황을 반영하듯, 영화는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관점에서 주인공의 가족들은 공산주의자에게 희생된 것으로 그려진다. 이 영화를 볼 때 유념해야 할 점이다.

이 영화는 주한 미 공보원에서 제작한 문화 영화로 한국인계몽과 해외 홍보를 위한 프로파간다적 성격도 강하다. 그 때문에 이 영화는 4·3의 원인이나 참상에 대해서

는 비껴간 채 관광지로 변모하는 독특한 문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프레임에 담았다. 제주의 민속 신앙인 제주굿과 해녀를 소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용두암과 산방굴사등 자연경관도 빼놓지 않는다. 당시로는 쉽지 않았던 수중 촬영을 통해 제주의 해초와 해산물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설명까지 곁들인다. 미지의 섬으로 제주에 대한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제주도는 4·3의 폐허를 딛고 자유주의의 희망이 피어나는 새로운 땅이라는 이미지를 지속해서 심어준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제주 현지에서 캐스팅된 제주 출신 아마추어 배우들이다. 배우들의 대사는 제주어로 진행됐다. 영화 음악은 제주민요 이아흥 타령을 편곡했다. 이점을 인정받아 1964년 제2회 청룡영화상에서 음악 부문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60년대 제주의 일상의 풍경이 시각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제주읍 오일장과 오현중학교, 제주시 시가지의 모습은 대부분 사실적 기록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화면들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1960년대 제주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음도 이 영화의 또 다른 흥밋거리다. **제주바둑리**

# 2021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성과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사업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로의 이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체 생산 자료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역사, 제주어, 민속문화 담당 연구원들의 자료를 집대성하며 아카이빙을 수행하였다.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 영상 공개 수집을 공모하고 시상(대상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 하였으며 관훈상제 관련 자료 608건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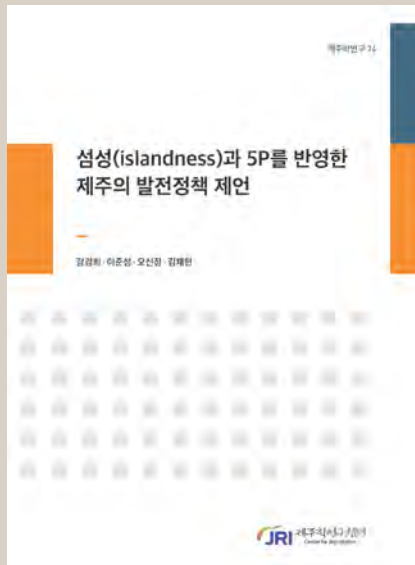
2021년 최초로 시작된 '제1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0강으로 구성되었고, 도민 26명이 신청 접수하여 23명이 수료하였다. 1기 과정을 이수한 23명의 예비 아키비스트들은 내년도 심화과정에 참여하며 실제적인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 2021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으로 기획주제 1건·자유주제 2건이 선정되어, 총 3건의 제주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제주학 연구 73 제주 판옥에 관한 연구》(한동

수·김라니), 《제주학 연구 74 섬성(islandness)과 5P를 반영한 제주의 발전정책 제언》(강경희·이춘성·오신정·김재현), 《제주학 연구 75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양정필·노우정·오승주·현미애·현수정)



### 2021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공모 지원 사업으로 번역서 1건이 최종 발간됐다. 발간된 저서는 다음과 같다. (번역: 이은주·심보경)

제주학 총서 54

《아다치를 통해 본 재일코리안 형성사-제주도·도쿄 아다치에서 살아온 반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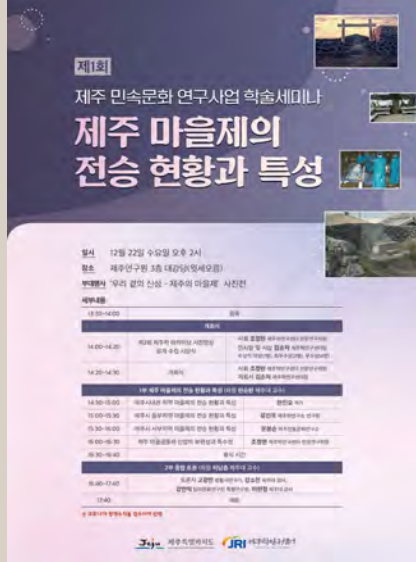
이 책은 재일동포 강철 씨의 원저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제주학 총서 54번째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 강철씨가 유년시절 제주에서 일본 아다치로 건너가 살아온 삶을 엮은 자전적 기록이다. 또한 강철씨의 시선을 통해 당시 재일동포가 처한 현실을 생생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 총서를 통해 재일코리안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를 기대한다.

### 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

올해 새롭게 시작된 ‘멸실위기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에서는 제주 마을공동체의 제의문화, 즉 분향당굿, 포제(이사제)

등 ‘제주의 마을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개년으로 수행되는 이번 조사연구는 총 5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1차년

도와 2차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4차년도 서귀포시 조사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년도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12월 22일 제주연구원에서 열었으며, 부대행사로 ‘우리 곁의 신성-제주의 마을제’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 제주어 연구 사업

### 《제주의 옷, 그리고 제주어》 발간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제주 지역의 의생활과 관련한 전통문화와 제주어 어휘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주 지역의 전통 의복과 관련한 이번 조사 사업은 지금은 사라져 버린 무명, 명주, 삼베 등을 직접 제작했던 이야기, 감물 들이기, 정동벌립

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의를 만들고 있는 ‘바농질와치’의 이야기까지 전통 옷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주어 어휘를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의 전통 옷 관련한 제주어 구술 자료집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과 제주 전통 옷의 언어와 민속 《제주의 옷, 그리고 제주어》를 발간했다.



감물 들이기 조사 장면(표선면 성읍리)



책 발간

## 《제주어로 풀어쓴 제주의 세시풍속 1》 발간 제주시 동부 지역 세시풍속 조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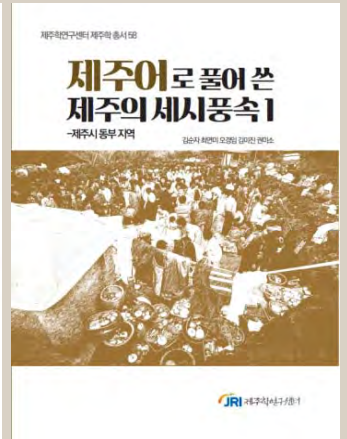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지역의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어휘와 문화 등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 지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세시풍속을 조사하는 이 사업은 올해 제주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주시 삼양동, 조천읍 대흘리와 신흥리, 구좌읍 송당리, 김녕리, 종달리 지역을 중심

으로 월별 행사, 포제, 세시 음식, 방사와 액막이 방법, 절기와 관련한 농사 시기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어 구술 자료집 《새철 드는 날 꼬넛기 아정 땡기민 베염난텐 곶아》와 《제주어로 풀어쓴 제주의 세시풍속 1(제주시 동부 지역)》을 발간했다.



세시풍속 조사(조천읍 신흥리)



##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자료집 《부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발간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한 해 동안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상담 자료집 《부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을 발간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상담한 총 321건의 상담 내용을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어종합상담실은 2019년 3월 26일에 개소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이 상담집에서 정리한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단어 99건(31%), 구와 문장 89건(28%), 뜻풀이 31건(10%), 표기 59건(18%), 어원과 지명 8건(2%), 문법과 발음 15건(5%), 기타 20건(6%)이다.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 거주자는 236명(73%), 도외 거주자는 66명(21%)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거주자 가운데에는 이주민이 19명(6%), 도외 거주자 중에는 제주 출신 6명(2%)이 포함되었다. 이용자의 연령대는 40대가 94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 92명(28%), 30대 58명(18%), 50대 42명(13%), 60대 15명(5%), 10대와 70대는 각각 2명(1%) 순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이 192명(60%), 남성이 119명(37%)으로 여성이 더 많이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어종합상담실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종합상담실 홍보 리플릿 ‘느도 헐지메(너도 할 수 있어), 제주어’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제주어 소개,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 안내 외에도

열두 가지의 제주어 흥내 내는 말을 그림과 함께 담아, 보다 친근하게 제주어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제주어 공모전 시상식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과 함께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 행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했고, 그 결과 일반부 28편, 학생부 35편



수상 작품집 <꿀렁이 혼들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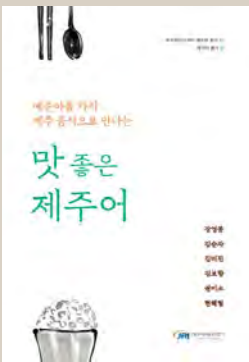
총 68편이 접수되었다. 그 중 1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는데,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 김순이 씨의 시 ‘우리집 부롱이’가, 학생부 문 최우수상에 고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윤 학생의 ‘전혀지 못한 핀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1월 6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이날 공모전 수상 작품집 《꿀렁이 혼들혼들》을 배포하였다.

## 제4회 《제주어대사전》 편찬 · 자문위원회의 개최 2021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2024년 발간을 목표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차년도인 2021년에는 6,000여 개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수정, 용례 추가를 하였고, 기존 입력된 표제어에 따른 사진 추가 작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2020년에 이어 《제주어 구술 자료집》 29권부터 36권까지의 제주어 구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용례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편, 12월 21일에는 ‘제4회 《제주어대사전》 편찬 ·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예순아홉 가지 제주 음식으로 만나는 맛 좋은 제주어》 쉽고 재미있는 제주어 총서 2권 발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읽히면서 제주어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주어 총서 2권 《예순아홉 가지 제주 음식으로 만나는 맛 좋은 제주어》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주어 현장조사사를 통해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제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음식 관련 제주어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문화 정보도 함께 설명하는 한편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흥미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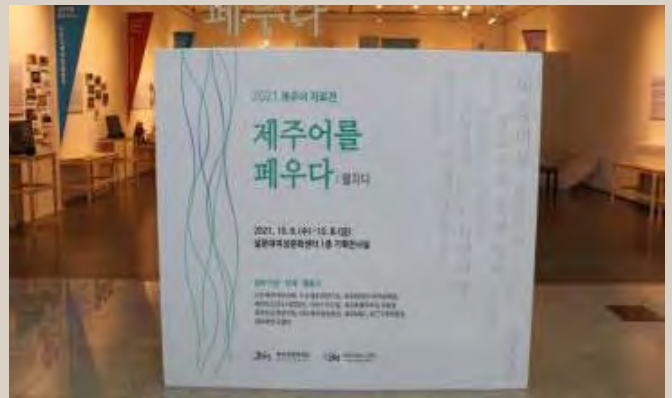
## 폐우곡, 누누곡, 통후곡! 2021 제주어 포럼 ‘놀이’와 제주어 자료전

제주학연구센터는 10월 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1 제주어 포럼 ‘놀이’-폐우곡, 누누곡, 통후곡!’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제주어 관련 학계, 문화 · 예술, 언론 등에서 제주어 관련 연구 ·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어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제주어포럼 1부에는 (사)제주어보전회, (사)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사우스

카니발이 교육 · 활동상을 발표했고, 2부에는 오영희(제주도의회 의원)를 비롯한 8명이 제주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폐우다!’를 진행했으며 총 11개의 기관 · 단체가 그동안 만든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를 한 자리에서 전시했다.



제주어 포럼 ‘놀이’ 단체 사진



제주어 자료전 입구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영조대 번역 및 학술세미나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조선 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 속 왕대별 제주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편찬하는 사업을 6년째 수행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V)-영조대》 발간을 위한 번역 작업을 진행했고, 12월 17일에는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번역 성과를 돌아보고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승정원일기》 등 귀중한 원전 자료를 활용한 제주 역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사업 《濟州島現況一般》 해제 및 번역



제주학연구센터는 근현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 기관지, 통신 등에 실린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여 공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외 현지조사 추진이 어려워져 국내에 소장된 근대 제주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원문 그대로 전사하여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190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제주도현황일반(濟州島現況一般)》이다. 1906년 6월 당시 통감부재정감사청 소속이던 가미야(神谷) 재무관이 제주를 조사한 후 다음 해에 보고한 내용을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 자료에는 역사, 지리, 정부와 도민의 관계, 행정조직, 도민의 생활상태 등 20세기 초 제주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처럼 100여 년 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 제주 근대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소개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조천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 조사·연구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조천 김해김씨 문중 소장 고문서 및 고서 자료를 조사하였다. 구한말 제주 지식인이었던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 1844~1916)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는 약 1,77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준호구, 첩, 전령, 명문, 소지 등과 같은 유형과 자작 시문집, 일기류, 서간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고문서 IV - 제주 조천 김해김씨 金義正 일가》를 발간했다. 이는 구한 말 김희정을 중심으로 한 제주 문인들의 교유 및 문학 활동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021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2021 제주 고전 강독회'를 운영했다. 2018년부터 진행한 '제주고전 강독회'는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한문 원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제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南槎錄》, 《增補耽羅誌》, 《破閑錄》 등 시기별 원전 자료를 종합해 강독했다. 강의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운영했다.

강독기간	2021. 6. - 11. (토, 일) 2회	2021. 6. - 11. (화, 목) 2회
강독시간	2021. 6. - 11. (토, 일) 09:00 - 18:00	2021. 6. - 11. (화, 목) 16:00 - 18:00
장소	경주대학교도서관 1층 100호	경주대학교도서관 1층 100호
대상	제주도민 누구나	제주도민 누구나
등록비	10,000원	10,000원
문의	064-710-2100	064-710-2100



### 한림읍 귀덕리 마을 주민 생애사 조사 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대상으로 마을 기록화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 생애사를 구술·채록함으로써 어촌 마을의 역사·문화와 해녀 문화 관련 유·무형 자산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수집·정리된 자료는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흑백영화 속에 담긴 濟州,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8월 12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흑백영화 속에 담긴 濟州,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63년에 촬영되었다가 개봉하지 못한 채 묻혀있었던 영화 ‘The Mountain(한라산)’을 최초 상영하였다. 상영 전, 영화를 발굴한 김동만 교수(한라대)의 영화 소개가 있었고, 상영 후에는 김수열 시인의 사회로 김동만 교수, 오승철 전 보도국장(제주MBC), 김순자 센터장(제주학연구센터)이 영화 ‘한라산’에 담긴 60년 전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제주학 인물사 강좌 운영 및 책자 발간

제주학연구센터는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을 주제로 ‘제주학 인물사 강좌’를 운영했다. 이번 강좌는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주시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귀포시에서 각 5회에 걸쳐 열렸다. 최정숙·고수선·강평국·부춘화·김옥련·부덕량·재일 제주 여성들의 삶과 업적을 도민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김창후(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문소연(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박재형(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 박찬식(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의 내용은 제주학 총서 55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만들어 각급 학교 및 도서관에 배포했다.



##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제5회 제주학대회 · 제주학 주간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제5회 제주학대회 및 제주학 주간을 운영했다. 10월 5일에는 ‘제주학의 현실과 공동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을 열어 제주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했다. 10월 6일에는 2021 제주어 포럼 ‘놀’과 제주어 자료전을 통해 제주어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10월 7일에는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 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제주학 자료전이 열렸다. 10월 8일에는 제주학 역사 탐방을 열어 제주 유배인들의 삶과 자취를 함께 거닐며 유배문화가 제주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탐색했다.



**‘지역학 네트워크의 확장’과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  
**제주학연구센터 ·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 교류회 개최**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호남 지역 학 연구의 산실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찾아, 양 기관 간 상호 교류 및 기관 운영 방식에 관해 논의했다. 제주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제주학진흥원 설립 준비를 위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충청남도역

사문화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TF 담당자를 초대하여 콜로키움을 열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22년 설립 예정이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유교문화 연구와 진흥사업을 맡게 된다.



## 2022년 주요 사업 일정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사업

<b>사업명</b>	<b>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b>
<b>내 용</b>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의 마을지》 수집 및 기록화 사업 제3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b>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2월 세부수행계획 수립</li> <li>3월~8월 사진영상 공개수집,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개설, 마을지 기록화</li> <li>9월~10월 공개수집 자료 심사 및 시상, 마을지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 개최</li> <li>11월~12월 보고서 발간 및 수집 자료 아카이브 구축</li> </ul>

### 제주학 지원 사업

<b>사업명</b>	<b>2022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b>
<b>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14일~4월 1일 공모</li> <li>4월 7일 선정 공고</li> <li>4월~11월 연구 수행</li> <li>11월 말 연구보고서 제출</li> </ul>

<b>사업명</b>	<b>2022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b>
<b>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14일~4월 1일 공모</li> <li>4월 7일 선정 공고</li> <li>4월~11월 연구 수행</li> <li>11월 말 출판물 제출</li> </ul>

### 멸실 위기 민속 문화 연구 사업

<b>사업명</b>	<b>[기본연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b>
<b>내 용</b>	제주 마을공동체의 제의문화 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세미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b>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2월 세부수행계획 수립</li> <li>3월~8월 문헌조사 및 현지 면담조사, 설문조사</li> <li>9월~10월 원고 집필 및 학술세미나 개최</li> <li>11월~12월 보고서 발간</li> </ul>

<b>사업명</b>	<b>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b>
<b>내 용</b>	‘제주의 마을제’ 전수조사 2차년도(제주시, 서귀포시) 조사 연구 사업
<b>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2월 세부수행계획 수립</li> <li>3월~8월 문헌조사 및 현지 면담조사, 설문조사</li> <li>9월~10월 원고 집필 및 학술세미나 개최</li> <li>11월~12월 보고서 발간</li> </ul>



사업명	마을 기록화 사업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 선정</li> <li>• 3월~11월 마을 관련 문헌 조사 및 현장조사 수행</li> <li>• 12월 보고서 발간</li> </ul>
사업명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내 용	제주의 세시풍속에 대한 지역별 구술 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집 발간, 시기별, 지역별 세시풍속 정리
일 정	• 3월~12월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사업명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내 용	제주어 말모이 작업인 《제주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집필과 새어휘 조사 작업
일 정	• 3월~12월

사업명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내 용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 제주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제주어 상담 전화 ‘들어봅서’를 운영하고, 상담 자료집을 발간 배포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3월 26일-제주어 종합 상담실 개소 3주년</li> <li>2022년 1월~12월</li> </ul>

사업명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내 용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 전통과 관련한 민속 문화와 제주어를 조사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일 정	• 3월~12월

사업명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내 용	제주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제주어 책자 발간
일 정	• 3월~12월

사업명	제주어 공모전
내 용	제주의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어 동영상과 글쓰기 작품 공모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9월 공모</li> <li>• 11월 6일 시상식</li> </ul>

사업명	2022년 제주어 포럼 ‘놀’
내 용	제주어 관련 활동가와 기관, 단체, 학자 등이 교류하며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 방향 논의
일 정	• 10월 중(제주어 주간)

사업명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사업
내 용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7년에 진행될 제주어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일 정	• 3월~12월

## 제주역사 편찬 사업

사업명	<b>[기본연구]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b>
내 용	제주도내 미공개된 호적 자료에 대한 인구 정보 DB 구축 및 해제 작업 수행 등을 통해 제주 호적 자료에 대한 기초 연구 토대 구축
일 정	• 1월~12월
사업명	<b>《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b>
내 용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역주하고 자료집 발간
일 정	• 1월~12월
사업명	<b>고문서 조사 연구 사업</b>
내 용	제주도내 고문서 가운데 역사성과 문중 고문서로서 가치 있는 고문서를 발간하여 탈초, 해제 자료집 발간
일 정	• 1월~12월
사업명	<b>제주고전 강독회</b>
내 용	제주도내 일반인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탐라의 역사문화와 관련 깊은 원전을 강독 해설하여 한문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사 교육 강좌 운영
일 정	• 4월~9월

## 제주학 교류 · 정책 · 교육 사업

사업명	<b>제6회 제주학대회</b>
내 용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 역사 탐방, 전시회
일 정	• 10월 중
사업명	<b>제주학 교류 및 정책 사업</b>
내 용	제주학 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 정책 세미나
일 정	• 1월~12월
사업명	<b>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 바투리》 발간 사업</b>
내 용	기관지 발간 및 배포
일 정	• 6월, 12월 발간(2회, 반년간)
사업명	<b>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b>
내 용	제주학 교육 프로그램 수행
일 정	• 1월~12월
사업명	<b>(가)제주학진흥원 설립 준비 사업</b>
내 용	(가)제주학진흥원 설립 준비를 위한 포럼, 네트워킹, 홍보
일 정	• 1월~12월

# 제주학 동향(2021년 하반기)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탐라의 마을을 찾아서》 영상 제작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원)은 《탐라의 마을을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여 제주 역사 유적지 알리기에 나섰다. 고산리 선사유적지를 비롯, 삼성혈, 혼인지, 삼양동 선사 유적 등 생생한 발굴 현장의 모습과 다양한 출토 유물을 담아, 제주 역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꿈다 인문학 아카데미 II' 운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지난 11월 '역사 속 난민'을 주제로 '꿈다 인문학 아카데미 II'를 운영하였다. 총 5개 주제로, 동아시아 역사 속 다양한 난민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과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권응상)는 지난 8월 11일 '길 위의 경계인: 환대의 부재와 떠도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미국 등 5개국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이주)하는 삶의 문제를 다룬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제주4·3평화재단, '제11회 제주4·3 평화 포럼' 개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10월 21~22일 양일간 '제주4·3 기억과 기록의 연대'를 주제로 <제11회 제주4·3 평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주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 6편 제작·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제주 이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 들어시민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영상물은 어린이용 《천지왕 돕기 대작전》, 《소로스 천국과 금백주 할망》, 《저주에 걸린 마을》 3편과 청소년용 《곶자왈에서 만난 소년》, 《신들이 자리를 비울 때》, 《숨비소리를 찾아서》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는 표준어 자막, 제주어 자막, 영어 자막, 무자막 버전으로 제공되어 활용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용 '제주어 교육' 장학 자료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2021 훈디 배우곡 훈디 쓰는 제주어 교육》 장학 자료 2종을 발간했다. 《훈디 배우곡 훈디 쓰는 5~6학년 제주어 교육 장학 자료》, 《훈디 배우곡 훈디 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장학 자료》는 학교에서 제주어 교육 시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주어 수업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참고 자료를 담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주어 교육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주어 기초어휘 활용 사전》 발간

우리가 알아야 할 토박이 제주어, 《제주어 기초어휘 활용 사전》(한그루)이 지난 11월 발간됐다. (사)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과 제주학연구원 김순자 센터장이 쓴 이 책은 제주어 소통에 꼭 필요한 349개의 제주어 기초어휘를 선정하고 이 어휘들의 용례를 현장조사에서 채록한 생생한 입말로 제시하였다.

## 《제줏말 작은사전》 발간

도서출판 제라헌의 김학준 대표가 지난 9월 《제줏말 작은 사전》을 펴냈다. 그동안 발행된 여러 제줏말 사전들과 전문 연구물, 문학작품, 언론매체 등 흩어져 있는 제줏말을 골라내고 모아 누구든 쉽게 제주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실용 사전이다.

## (사)제주어연구소 다섯 돌 기념 강정희 방언학자 초청 강연

(사)제주어연구소가 설립 5주년을 맞아 8월 5일 오후 2시 김만덕 기념관 1층 세미나실 만덕홀에서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원로 방언학자 강정희 한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날 강연회에서는 '제주 방언의 요청하기 화행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사)제주어연구소, 구술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 운영

(사)제주어연구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1 구술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를 운영했다. 이 강좌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어르신들의 생생한 제주어 구술을 들으며 그 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사)제주어보전회,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

(사)제주어보전회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3회 2021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를 진행하고 10월 24일 총 38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1편을 비롯해 우수상 2편, 가작 6편, 입선 21편 등 총 30편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어머니! 그 시 상에선 아프지 맙서'를 출품한 강순복 씨가 차지했다.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 지역 해설사 대상 제주어 교육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 해설사를 위한 제주어 교육을 진행했다. 이 강좌는 제주어 문법, 제주어 음운, 역사 자료 속 제주어, 제주어의 생태언어학적 접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서귀포신문, 제3회 제주어 문학상 수상

서귀포신문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작품 공모를 하고 11월 25일 제3회 제주어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시 부문은 김현진 씨의 '오메기떡', 김정미 씨의 '늙은 호박'이 가작으로 선정됐으며, 수필 부문에는 진해자 씨의 '어머니의 벽시계', 소설 부문에서는 김애란 씨의 '무음꽃 심지꽃'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나비와 문화》 학술보고서 발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 서식하는 나비의 분포 실태를 조사한 학술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93종의 나비에 대한 분포, 습성, 변이 등의 정보와 도내 곳곳에서 촬영한 생태사진, 그리고 제주학의 선구자인 석주명의 나비연구를 비롯해 나비 표본 만들기, 나비 기르기, 나비 관련 문화 이야기, 나비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 곶자왓공유화재단 곶자왓연구소, 2021년 곶자왓 심포지엄 '곶자왓과 웰니스' 개최

곶자왓공유화재단 곶자왓연구소는 11월 26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숲(곶자왓)에서 운영 가능한 웰니스 프로그램인 산림치유, 휴양의학, 지역 브랜드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제주도 숲 곶자왓이 갖고 있는 새로운 보전가치를 도출, 곶자왓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해녀박물관, 수장유물 '제주 여성의 생활가구展' 진행

해녀박물관은 9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장고에 보관중인 유물 중 제주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가구를 전시했다. 바닷길 뿐만 아니라,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하루도 쉬 없는 삶을 이어 온 제주여성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사)제주학회 발간 《제주도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사)제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제주도연구》가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제주도연구》는 1984년 창간되어 56집이 발간되었고,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언어·사회·자연·문화·고고학 등 제주학 전반에 관한 학술 논문 및 보고서 등을 게재하고 있다.

###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는 10월 8일 학술대회 '신축항쟁, 지역의 기억과 역사적 진실'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저항의 제주 역사로 본 신축항쟁', '비어있는 사실과 재현으로의 기억', '광무연간 제주도의 부세제도와 부세수취',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바라본 신축교안의 발생 원인과 현재의 평가'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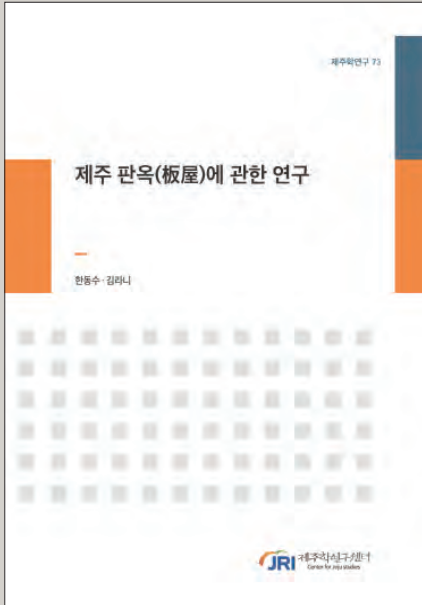
###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특별기획전 진행

제주교육박물관은 소장사진 특별기획전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가 기억하다'를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28일 까지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 일제강점기 학교 교육의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들을 선정하여 마련했다.

###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살아있는 노지문화박물관 휴먼라이브러리' 상영회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는 12월 15일 롯데시네마 서귀포점에서 '살아있는 노지문화박물관 휴먼라이브러리' 상영회를 열었다. 이번 상영회는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가 올해 서귀포 어른신 10명의 삶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 이중 5편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과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및 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발간물

##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공모 자격:** 제주학 관련 연구 기관/학술단체 및 소속 연구자

**공모 과제:** 기획주제/자유주제 중 택 1

-기획주제: 추후 센터 내부 협의를 거쳐 3가지 주제 선정

-자유주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공모 기간:** 2022년 3월 14일~4월 1일

**수행 기간:**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7개월 간



2021 발간물

##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공모 자격:** 제주학 관련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

**공모 과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단행본 발간

-제주학 관련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서적의

국문 번역서 발간

-제주학 관련 국문 서적의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번역서 발간

**공모 기간:** 2022년 3월 14일~4월 1일

**수행 기간:** 2022년 11월 말까지 발간 완료

※ 사정에 따라 세부 공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주바투리



9 772733 493008  
ISSN 2733-4937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